

1098

1999년

제3차 정기총회 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 평화집 4층)
전화: 02-264-8649 / 전승: 02-275-4861

- 일시 : 1999년 3월 4일 (목) 오후 4시-7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사단
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2264-8649, 2275-4860 / 전승 2275-4861 / 천리안 WMP

보관

1999년

제3차 정기총회 보고서

- 일시 : 1999년 3월 4일 (목) 오후 4시-7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시민
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 동구 잠실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2254-8549, 2275-4860 / 전술 2275-4861 / 팩시민 WMP

목차

총회순서 / 5

1998년도 사업평가 / 7

사무처보고 / 9

중점사업평가 / 28

각 위원회 사업평가 / 31

1999년도 사업계획안 / 69

사업방향 / 71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 72

1999년도 월별 사업계획안 / 79

정관 / 81

1998년도 정관 / 81

1999년도 정관개정안 / 87

운영규정 / 89

별모음 / 91

총회순서

제1부 : 강연

일본 군국주의화(일미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과 99년 전망
 - 도쿄토론회를 다녀와서 / 김윤옥 공동대표

제2부 : 정기총회

의장 : 이우정 수석대표

상수보고	서기
개회선언	의장
회순재택	의장
개회사	의장
전 회의록 낭독	서기
1998년 사업보고	
-사무처	사무총장 최만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영희
-평화통일사업위원회	위원장 윤수경
-평화교육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건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재정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명선
-병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감사보고	감사 이문우, 윤영애
1998년 회계결산보고	회계 노길림
정관개정 및 운영규정 채택	의장
신임 임원 및 운영위원 인준	의장
신규 임원 및 운영위원 교체식	신규 임원과 운영위원
1999년 사업계획안 채택	의장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	
1999년도 예산안 채택	의장
기타토의	의장
회의록 발음	의장
폐회선언	의장

3부 : 밥나누기 삶나누기

1998년 사업평가

(1998. 2.20 ~ 1999. 3.3)

1. 사무처 보고
2. 중점사업평가
3. 각 위원회 사업평가

1. 사무처 보고

1. 회의

(1) 1997년 제2차 정기총회

1) 일시 : 1998년 2월 30일(금) 오후 2:00 - 5:00

2) 장소 : 경동교회

3) 성원 : 참석자 32명, 위임 116명

4) 순서

① 제1부 강연 : IMF 피해와 준비통제 / 이장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② 제2부 총회

③ 제3부 평화의 몸살리기, 식사와 원로

5) 안건

① 1998년도 중점사업 채택

② 1998년도 가 위원회 사업 채택

③ 1998년 예산안 채택

④ 정관 개정과 공동대표단 선출

(2) 이사회

· 구성 : 이우정, 김윤옥, 김지영, 박정수, 윤순녀, 이덕경, 이정자,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1) 1998년 이사회

① 일시 : 1998년 2월 28일(토) 오전 11시 - 12시

② 장소 : 본회 사무실

③ 참석 : 이우정, 정현택, 박정수, 이현숙

④ 안건 : 1998년도 사업안 검토 인준, 신임 사무총장 인준

2) 1999년 상반기 이사회

① 일시 : 1999년 3월 2일(월) 오후 6시

② 장소 : 세실레스토랑

③ 참석 : 이우정, 김지영, 김윤옥, 윤순녀, 이정자,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김숙임

④ 안건 : 1998년 사업평가, 1999년도 사업안 검토, 1998년 회계결산 검토, 1999년 예산안 논의, 사무총장과 운영위원 인준,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3) 공동대표단 회의

·구성 :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1)임시회의 (1998. 2.17, 오전 8시)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재개 추진의 건

2)1차 회의 (1998. 5.12 오후 3시, 본회 사무실 /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①IWILPF 지부 설립에 관한 건 : 그동안 한국에서 평화운동을 해온 여성들의 경험을 존중하여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부를 설립키로 하고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저우희, 김영, 정현화, 조영숙, 최만자 등 10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하며 이현숙 공동대표가 회장을 맡기로 하고 워크숍 속의 이현숙 회장이 맡기로 하다. 워크숍의 결정을 받은 후 지부설립을 추진키로 하며 회의 규모는 우선 평화여성회 대외협력위원회 수준으로 하고 당분간 평화여성회 내에서 하기로 하다.

②5.21과 5.23 행사에 관한 건 : 5.21 선언문을 검토하고 전문을 비롯한 내용 조정을 한 후 정리를 사무국에 위임하기로 하다. 5.23 행사는 여성선언을 300인원으로 하여 5.21과 차별을 하기로 하다.

③기독교 사회발전 프로젝트 재추진 건 : 평화여성회에 필요하고 적합한 내용을 연구개발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평화문화의 조성 및 남북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킨 내용 등을 프로젝트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다.

3)2차 회의 (1998. 6.12, 오전 12시, 세일레스도탈,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윤영선)

①6월 운영위원회 안건 검토 : 청소년문화제의 건, 내성화원제의 건, 평화공존 주제의 심포지움 개최의 건,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의 건, 남북여성대화포럼 지속의 건, 군축운동 정책 확장에 대한 건.

4)3차 회의 (1998. 8.20, 오전 11시, 세일레스도탈,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최만자, 김영)

①IWILPF 총회 보고의 건 : 김영 대외협력위원의 보고를 듣고 워크 조직문제에 대한 논의끝에 이우정, 이현숙, 김영, 조영숙(이현), 최만자가 결의로 하기로 하다.

②남북여성교류에 관한 건 : 이우정 수석대표가 시미즈 위미코씨의 방문내용과 북한 여성측과의 연락관계가 남북여성교류의 재개보다는 정신대 문제를 중심으로 될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어서 김윤옥 대표가 정신대 문제를 중심으로하여 북한, 남한, 일본 여성들 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하다. 여성교류는 앞으로 더 기다려보기로 하다.

③본 회 사업기조 정리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무처의 제안을 그대로 반기로 하다.

④신입실무자 인준의 건 : 사무부총장에 김숙임을, 정책국장에 김현리를 인준하다.

⑤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의 건 : 조영희를 정책위원장으로 선임하다.

⑥평화공존의 주제를 남북여성교류의 내용으로 바꾸어 심포지움을 갖기로 하다.

⑦인화월 진행과 앞으로의 참여에 대한 건 : 현회 인화월과의 관계: 이우정 대표가 재민자

격으로 참여되고 있으며 차후로 평화여성회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우정 대표가 설명하다.

54차 회의 (1998. 9.29 12시, 기독교연합회관, 이우정, 이현숙, 최만자)

-WILPF 관계에 관한 건 :

①8.27일에 가진 김영, 이현숙, 최만자, 조영숙의 토의 결과 WILPF 조직은 개인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월프 임시조직(이우정, 이강재, 조영숙)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임시조직 회의가 성사되지 않아 이강재, 최만자의 만남에서 이를 전달하고 이에 이강재가 평화여성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사무국 내부에서 토론한 결과 현 상황에서 평화여성회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최만자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②어 보고를 근거로 토의한 결과, 월프 지부조직에 더 이상 평화여성회 차원에서 참여할기로 하고 개별참여는 재민회사대로하기로 하다.

65차 회의 (1998. 1.7. 오후 1시, 본 회 사무실,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 배석 : 김숙임, 안수경) : 사무실 이전의 건

(4) 운영위원회

·구성 :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이상 공동대표), 이경숙(서기), 박성자(부서기), 노길민(회계), 조영숙(부회계), 최만자(사무총장), 김숙임(사무부총장), 조영희 (정책기획위원장), 윤수경(평화통일사업위원장), 한진이(평화교육위원장), 윤명선(재정조직관리위원장), 김묘주, 윤문자, 이계정, 이영순, 지은희, 한명희(이상 일반운영위원)

111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3월 24일 (화) 오후 3시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참석 :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김숙임, 윤수경, 한진이, 김묘주, 이영순, 최만자

④안건 : 국제금식의날 서울대회 준비관계의 건, WILPF Internship 참가자 선정의 건, 회계 (노길림), 부회계 (조영숙) 선임의 건, 대인지회 관계의 건, 부채달걀 서명운동 확산 방안의 건, 민간단체 통일연대 운영위원 수락의 건

212차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4월 27일(월) 오후 2시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참석 : 이우정, 김윤옥, 윤명선, 윤수경, 박성자, 조영숙, 노길림, 김숙임, 최만자

④안건 : 5.21 군축을 위한 행사 공동 개최의 건, 5.23 세계여성の日 행사 공동 개최의 건, 제

1차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개최의 건, 분단현장체험 평화기행의 건, 청년조직·탈북청년과의 대화모임 개최의 건, 후원회원의 밤 개최의 건, 평화강좌 개최의 건, 평화서신 재개최의 건, 8.15 노부도 통일로 행진 제언의 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313차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6월 25일(목) 오후 6:00

②장소 : 시티 레스토랑

③참석 : 이우경, 윤명선, 윤수경, 조영숙, 노길원, 한진이, 김숙임, 최만자

④안건 :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평가와 하반기 계획의 건, 제2차 미래를 여는 청소년 문화제에 관한 건, 평화공존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남북여성교류문제, 평생회원제도 제정, 군속운동을 위한 전문가 화상, 5.23 행사준비위의 군사비 삭감 운동 전개를 위한 정책간담회의회, 동아시아여성포럼 참가의 건, 평화만들기 재정확보를 위한 교회 순방 평화강좌에 관한 건

41일시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7월 7일(화) 오후1시 30분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내용 : 통일부 장관 초청 과담회 준비

④참석 : 이우경, 이현숙, 최만자, 윤수경, 김숙임, 윤명선

504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참석 : 이우경, 김윤숙, 이현숙, 정현택, 윤수경, 한진이, 김숙임, 최만자

④안건 :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위상의 건, 제2기 탈북여성 대화모임의 건, 분단현장체험 평화기행의 건, 제34회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의 건,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심포지움의 건, 신임실무자 인준의 건의 건, 본회 사업기조 정리와 사무국 운영에 관한 건, 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수혜민 돌기에 대한 건, 사단법인 추진 작업 위임 발기인 선정의 건

603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②장소 : 본 회 사무실

③참석 : 이우경, 이현숙, 정현택, 윤명선, 윤수경, 한진이, 조영희, 최만자, 김숙임

④안건 : 남북교류의 진전과 과제 심포지엄 평가, 양문 소식지 발행의 건, 탈북여성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의 건, 회원의 날의 건, 소식지 종료의 건, 농발협 관련 대화연대의 건, 사단법인 허가에 따른 행정운영 체제 정비에 관한 건

76차 운영위원회

①일시 : 1998년 12월 4일(금) 오후 2시

②장소 : 본 회 사무실

③참석 : 이우정, 이현숙, 정현택, 윤명선, 조영희, 최만자, 김숙임

④안건 : 평화사랑 큰 여당 티벳 판매의 건, 회원소모임 구성의 건,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송년모임의 건, 탈북여성대화모임 후속 프로그램의 건, 탈북여성생활실태조사 결과 토론회의 건,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5)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 사무처

1)1차 총회준비위원회

①일시 : 1999년 1월 14일(목) 오후 3시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구성 : 김윤옥, 이현숙, 정현택, 조영희, 최만자,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④안건 : 1998년도 사업평가(안)에 대한 논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운영회 조직 문제(운영위원, 위원장, 사무총장 보선 문제), 병설 한국여성경화연구원 운영 조직 문제, 제2차 출간회 안건 결정

2)2차 총회준비위원회

①일시 : 1999년 2월 11일(목) 오후 3시

②장소 : 본회 사무실

③구성 : 이우정, 김윤옥, 정현택, 최만자,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④안건 : 1999년도 사업방향 논의,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논의, 1998년도 회계보고, 1999년 예산안 검토,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인선 논의 (사무총장, 각 위원장, 운영위원, 연대활동 대표자), 제1차 정기총회 순서와 형식 논의

(6) 각 위원회 회의

1)정책기획위원회 : 10회

2)평화통일사업위원회 : 8회

3)평화교육위원회 : 9회

4)대외협력위원회 : 4회

5)재정조직위원회 : 9회

(7) 사무처 회의

·구성 : 최만자(사무총장), 김숙임 (사무부총장), 안수경(조직국장), 김엘리(정책국장)

1) 정기회의 : 매주 1회

안건 : 사업활동 진행 보고와 검토, 평가, 논의, 사업활동 계획, 연대활동과 다 단체와의 활동 보고와 요청한 건에 대한 처리 논의, 기타

2) 워크숍 : 남북여성교류의 전담과 과제 실행지도를 위한 발제문 독살

① 1차 회의 : 10월 13일 (화) / 김숙임, 김엘리, 안수경

② 2차 회의 : 10월 14일 (수) / 김춘옥, 최만자, 김숙임, 김엘리

2. 주요 사업활동 일지

1996년

- 2.20 제2차 총회
- 3.1~30 10여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담감 서명운동 연대
- 3.2~13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42차 회의에 출석하며 참석
- 3.8 제14차 3.8 여성대회 연대 참가
- 3.14 1차 제2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북한의 사회화와 교육”
- 4.8 북한동기 국제금식의 날 행사를 위한 거리모금과 가두 홍보
- 4.18 1차 제3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결혼과 가족”
- 4.25 북한동기 국제금식의 날 공동 개최
- 4.26 제1차 지방순회(수원) 평화강연
- 5.10 평화여성회 소식지 통권 6호 발행
- 5.15 후원위원의 밤
- 5.16 1차 제4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친족관계와 잔존상제”
- 5.21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 공동 기자회견
- 5.23 524명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문화행사 공동개최 및 여성 300인 성명서 발표
- 6.6 제2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여행
- 6.20 제1회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애들이 놀자! 평화의 물결다고”
- 6.26 제2차 지방순회(울산) 평화강연
- 6.27 1차 제5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
- 7.4 제2회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애들이 놀자! 평화의 물결다고”
- 7.4 민족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륙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연대
- 7.15 강원도 통일부 장관 초청 과담회
- 7.23 WILPF 세계총회 참가

- 813-15 815 통일속전 연대
- 93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결성식
- 911 제1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신생대 군사질서 구도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 912 제3차 정책협의회
- 918-106 탈북여성 생활실태 설문조사
- 926 2차 제1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이야기”
- 101 평화여성회 소식지 통권 7호 발행
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음
- 109 제2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남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비의 특징”
- 1020 남북여성교류 방안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 1024-25 2차 제2회 탈북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기행
- 1026-31 제3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 문화제, “나의 진로 찾기”
- 113-8 “여성과 갈등해소”에 관한 국제 컨설팅이전에 한국대표로 참석
- 117 제3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117 제3차 지방순회(목포) 평화강연
- 1113 제3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남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비의 특징”
- 112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축소 촉구대회 연설 참가
- 1127 1999년 방위예산 축소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공동주최
- 1128 2차 제3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남한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찾기”
- 1129 제4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 문화제 “내 꿈을 펼쳐라”
- 1211 제4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군사비 삭감을 중심으로 한 군축운동의 과제와 방향”
- 1218 탈북여성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1218 2차 제4회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송년간지”
- 1219 제정경제부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됨
- 1999년
- 123 평화사랑큰마당, “느티나무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회원의 날)
- 127 평화교육 워크숍
- 25-15 제4차 순회평화강연 (미국뉴욕)

3. 홍보, 출판 활동

(1)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 1998년 봄호 통권 6호, 1998. 5.10, 700부 발행

- 편집 : 마음어 고화이지 / 이우정
- 평화만들기 1 :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평화만들기 2 : 남북농업협력의 필요성
- 평화이야기 : 복녀땅을 그리는 노모 집에서 / 권혜순

- 생각해봅시다 : IMF 시대와 군축 / 정철관
- 신입사부총장에게 듣는다 / 최만자
- 소식
- 알립니다

(2)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 1998년 가을호 통권 7호, 1998. 10.1, 700부 발행

- 편집 : 평화운동을 위한 신앙고백 / 정현택
- 평화만들기 1 : 무정한 유적과 유정한 우리 / 김정미
- 평화만들기 2 : 애를야 늙자 평화의 물결타고 / 최영숙
- 평화이야기 : 열기와 냉기 / 정정자
- 나의 통일유형은?
- 초청좌담회 요약문 : 강인덕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다
- 소식
- 알립니다.

(3)'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1998.10.20, 300부 발행

(4)9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집 1998. 11.27, 200부 발행

4. 국내 연대활동

(1) 대외연대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사회 : 이원숙, 최만자
- 사무임원회(서기) : 최만자
- 사무국장 회의 : 안수경, 김엘리
- 평화통일위원회 : 윤수경

(가)회의

가-1. 이사회

①제1차 이사회

- 일시 : 1998년 2월 25일(수) 오후 2:30-7:00
- 장소 : 여성평화의길 지하 회의실
- 내용 : 38여성대회 준비, '97여성평의 대담분, 결집분 선정, 올해의 여성운동상 후보 선

장, 여성고용현황에 관한 정책 토론

- 참석: 이현숙 (총 20명 참석)

②제2차 이사회

- 일시 : 1988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총 22명 참석)
- 내용 : 5.6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IMF시대 여성실업 대책에 관하여 정책 논의,
90주년 3.8세계여성의 날, UN인권헌장 선포 50주년 기념,
제14회 한국여성대회 평가 및 결산 보고,
제3대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언후보 선정에 대한 결과보고

③제3차 이사회

- 일시 : 1988년 9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 여연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총 23명 참석)
- 내용 : 9.10월 사업계획 검토, 88년 전국여성활동가 여름수련회 평가,
여연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 구상에 대한 논의,
화반기 미디어 사업시행에 관한 논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성폭력 추방주간 행사 심의, 3.8여성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여연 하반기 사업 조정

④제4차 이사회

- 일시 : 1988년 11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참석 : 최만자
- 내용 : 현시기 제기되는 시민사회권현상에 대한 총괄적 이해와 토론에 대한 정책 토의,
12월 사업계획 심의, 여성인권선언 내용 검토, 실직여성가장 거들나기 사업평가,
여연 뉴스레터에 대한 점검 및 평가, 88년 여성운동 10대 뉴스 선정에 대한 검토,
제13차 경기총회준비위원회 구성안과 총회안건에 대한 점검의 건

⑤1999년 제1차 정기이사회

- 일시 : 1999년 2월 24일 오후 1시
- 장소 : 한국여성사회교육원
- 참석 : 김숙임
- 내용 : 3.4월 사업계획심의, 98여성대회 디딤돌, 전립들의 건, 윤혜 여성운동상 후보선정,
미디어센터 설치의 건, 3.8여성대회 회원단체 돌입의 건 등

가-2. 실무임원회

①제1차 실무 임원회

- 일시 : 1988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여연 회의실

- 내용 : 광역회의 비례대표 공천 기준 설정, 후보추천 방식 논의, 지방자치 여성 후보 선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사업에 대한 여연 입장 정리의 건, 198년 조직위원회 사업주가 인준의 건, 우리방송문화지키기 시민공동 대책위원회(준) 가입인준의 건, 국제여성심포지움 AFSC 후원금 보고의 건, 지은희 상임대표에게 제안된 이미경의원 후원회 운영위원 수락의 건, '화년 2000년 연합' 주회, 10여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채당갑 서명운동의 건, 아셈회의에 대응하는 아시아, 유럽 민간단체의 공동입장 서명의 건, 지자체 선거관련 사업계획 심의회의 건.

- 참석자 : 최만자

②여연 임원회

- 일시 : 1998년 4월 9일(목) 오후 5시
- 장소 : 여성평화회의 김 지하 회의실
- 내용 : 비례대표 추천자 선정에 대하여
- 참석 : 최만자

③제2차 실무임원회의

- 일시 : 1998년 6월 16일(화)
- 장소 : 여성평화회의 김 지하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 내용 : 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보고, 98 사이버 여성문화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면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청소년에 관한 성교육 시행령 제정에 따른 강사 양성교육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여연 관련 민간기관에서 현장실습 거쳐도료 요구함, 참여연대 제의 '사회보장연대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제정 추진, 미인대회 중계 반대 시위 개최, 태매춘 조장 중기향 폐쇄조치 요청 운동 공동 집회, 6.10 항쟁 기념 위키극복과 개혁을 위한 각계인사 610인 선언 참여, 여성특위 여성경제활리기금지원 프로젝트 제출 '아웃과 함께하는 여성' 자원봉사교육, 여성특위 제3회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 박영숙, 이문자, 한병숙, 여성민주회, 여성노동자협의회 부설 경증의 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벗장을 여는 사람들', 제8회 일가기념상 사회공익부문 후보자 추천: 이옥순 서울 여성노동자회 회장, 실력여성이강함기 결재인, 98전국여성활동가 수련회 프로그램, 98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명가와 99년 계획

④3차 임원회

- 일시 : 7월 22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여연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 내용 : 7.8월 사업심의, 실업극복여성지원 센터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대추진 남측 추진본부 경과보고 및 사업공유, 시민사회 발전기본법에 대한 의견 수렴, 인력은 여성의 김 위탁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리

⑤4차 임원회

- 일시 : 10월 22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여연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 내용 : 11월 사업계획 검토, 실착여성가장 계륵나기 지원자 선정에 대한 점검, 복지위원장 선임문제, 제13차 총회준비위 구성 및 안건 점검,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여연 입장정리

가-3. 사무국장 회의

①제2차 전국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 장소 : 여연 회의실
- 참석 : 안수경
- 내용 : 회원단체 활동보고, 여연보고, 3.8여성대회 평가, 시민사회단체 제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의 건, 기타토의

②제3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4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 여연사무실
- 참석 : 안수경
- 내용 : 여성활동가 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사무국장 연석회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

③제4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5월 19일(화) 오후 4시~7시
- 장소 : 지하 회의실
- 참석 : 안수경
- 내용 : 각 회원단체 활동 보고, 여연활동 보고, 제1차 차세대 여성운동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점검, '98 전국여성활동가 수련회 점검, 기타토의

④제5차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여성평화의 길 지하회의실
- 참석 : 안수경
- 내용 : 여성지도자 연수 프로그램평가, '98전국여성활동가 수련회 점검, 기타

⑤서울지역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8월 27일(목) 12시
- 장소 : 여연 사무실
- 참석 : 김엘리
- 내용 : 전국 사무국장 회의를 위한 프로그램 사전 논의

⑥제6차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회의실

- 참석 : 김영리

- 내용 : 1998년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평가, 1999년 중점사업에 대한 토론,
1999년 전국사무국장 연석회의 계획, 기타

(나)사업참여

①제14회 한국여성대회 참여

- 일시 : 1998년 3월 8일(일) 오후 1시 - 6시

- 장소 :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 참석 : 본회는 19명

- 행사 : 10억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타감 시명운동, 평화여성회 홍보부스설치, 책 판매

②여성의 정치세력화 사업 :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자로 김숙임(경기도), 윤수경(서울)추천

③제1차 차세대 여성운동 지도자 연수

- 일시 : 1998년 6월 22일(월)~ 23일(수)

- 장소 : 아카데미 하우스

- 참석 : 안수경

- 내용 : 세계화 속의 한국경제,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경제 전망, 서구의 시민사회와 한국
의 시민사회, 최근 여성학 이론의 흐름에 대한 느낌, 과제토론, 기타

④여성 실업자를 위한 행사 '희망' 참석

- 일시 : 1998년 7월 2일(목) 오후 6시~8시

- 장소 : 기독교 백주년 강당

- 참석 : 이우경, 윤병선, 최만자

⑤여성양심수 석방을 위한 묵요시위 참여

- 일시 : 1998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 탑골공원

- 내용 : 여성양심수 석방을 위한 피켓시위

- 참석 : 안수경

⑥국민회의 부른정치 모임(방문참석 :김민석 의원)과 여연 회원단체와의 만남

- 일시 : 1998년 9월 8일(화)

- 장소 : 여성평화회 집 지하 회의실

- 참석 : 최만자

⑦군 가산점 심포지움 참석

- 일시 : 1998년 10월 17일(토) 오후 3시

- 장소 : 기독교교회 100주년 기념관

- 참석 : 김숙임

⑧평신대 시회 참석

- 일시 : 1998년 10월 30일(금) 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 참석 : 안수경, 윤수경

②미디어 분야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 참석

- 일시 : 1998년 12월 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참석 : 김숙일

2)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 상임의장 : 이우경
- 실무책임자 : 최만자
- 실무회의 참가 : 안수경

(가)준비회의

- ①준비회의 1차 : 1998. 3.3. 오전 8시, YMCA 연맹 회의실 (최만자 참석)
- ②준비회의 2차 : 1998. 3.23. 오전 8시, 인사동 청진옥 (최만자 참석)
- ③토론회 기획 : 남북농업 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활동 방향 모색 토론회 모임
 - 일시 : 1998년 3월 27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성가수녀원 회의실
- ④준비회의 3차 : 1998. 5.18. 성가수녀원 (최만자 참석)

(나)유정해서 보고회 : 1998. 4.7 오전 8시, 4.8 오전 8시, YMCA (안수경, 최만자 참석)

(다)전문위원과의 간담회

- ①일시 : 1998년 4월 17일(금) 오후 4시
- ②장소 : 새실 레스토랑
- ③참석 : 최만자
- ④참고 :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후 5월 중에 농발협 창립예정

(라)대표자 회의

- ①대표자 회의 (1998. 6.12. 성가수녀원, 이우경, 최만자 참석)
- ②대표자 회의 (1998. 7.2. 8.8일, 이우경, 최만자 참석)

(마)실무자회의

- ①실무자회의 (1998. 5.19. YMCA 7층 회의실, 안수경 참석) : 남북농발협 사업방향 논의

②실무자회의

- 일시 : 1998년 7월 6일(월) 12시
- 장소 : 종로5가 교향산원
- 내용 : 남북농발협 대표자회의 준비모임
- 참석 : 안수경

③실무자회의

- 일시 : 1998년 7월 30일(금) 오후3시
- 장소 : 교향산원
- 내용 : 전문위원과 별, 보리 2모작 제때에 대한 논의
- 참석 : 김숙임, 안수경

(바)기타 : 1998년 10월, 농발협 회원단체 발의

3) 북한물포접기 국제급식의 날 한국위원회

- 상임고문 : 이우정
- 대변인 : 이현숙
- 실행위원 : 최만자

(가)회의

- ①매주 목요일 오전 7:30 서울 YMCA 6층 자원방
- ②1998년 3월 12일 (목) 오전 9:30 : 기자회견
- ③1998년 4월 25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국제급식의 날을 개최키로하고 참가 단체 교섭

(나)행사참여

①북한물포접기 국제급식의 날 행사를 위한 거리모금과 가두 홍보전

- 일시 : 1998년 4월 8일(수) 오후 12시-2시
- 장소 : 평동 사거리
- 참석 : 이우정, 이현숙, 한진아, 윤명선, 안수경, 김정미
- 내용 : 가두홍보전에 참여 기금 모금과 견단배포

②북한물포접기 국제급식의 날 행사 참여

- 일시 : 1998년 4월 25일(토) 오후 12시-6시
- 장소 : 잠실운동경기 제2경기장
- 광고 : 이우정 수석대표 '대국민호소문' 낭독
- 문희 참석자 : 15~20명
- 기타 준비회의, 기자회견, 비디오 촬영 등의 행사를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가짐

4) 한국대인지피대책회의

-공동대표 : 김윤옥

(가)대표자 회의

①대표자 회의 : 1998년 3월 11일(수) 오후 2시~4시, 경실련 회의실 (김윤옥 참석)

②대표자 회의

- 일시 : 1998년 3월 23일(월) 오후 3시
- 장소 : 기사면 사무실
- 참석 : 김윤옥, 최만자
- 내용 : 집행위원 구성관계, 주요사업 결정과 사업운영 방안 모색
- 본회 토의사항 : 회원 단체로서의 참여정도 결정의 문제

(나)실무책임자 회의 : 1998년 6월 9일, 신바람사건교육연구소 (최만자 참석)

5)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축전 남측추진본부

-상임의장 : 이우정

-정책위원회 : 안수경

(가)회의

①제2차 정책위원회

- 일시 : 1998년 7월 21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회의실
- 내용 : 대축전 긴급토론회 조직의 건, 경제분석의 건, 언론분석팀 구성의 건, 학술위원회 소집의 건, 실무회담 대책논의 건, 민족대토론회 기획안 검토
- 참석 : 안수경

②제3차 정책위원회

- 일시 : 1998년 7월 28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회의실
- 내용 : 실무회담 준비의 건, 정책위원 역할분담의 건, 민정협 향후 위상에 대한 건, 학술대토론회 검토
- 참석 : 안수경

③제4차 정책위원회

- 일시 : 1998년 8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회의실
- 내용 : 민족대토론회 점검, 실무회담에 관한 건, 민정협 향후 방향에 대한 건
- 참석 : 안수경

(나)사업참여

① 민족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륙권 남북 추진본부 결성식

- 일시 : 1998년 7월 4일 (토)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 참석 : 아우정 (대회사 연설)

② 8.15 통일축전 개막식

- 일시 : 1998년 8월 13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내용 : 경과보고, 개막선언문 낭독 등
- 참석 : 이우정, 최만자, 이정자, 권혜순, 윤문자

③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대토론회

- 일시 : 1998년 8월 13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제 :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하여
- 참석 : 이우정, 최만자, 정현백, 한진이, 윤수경, 장도삼, 이정자, 김숙일, 문화영, 권혜순, 조영희, 윤문자, 최영숙, 김엘리, 여해숙, 안수경
- 본회 토론자(윤수경)도 참가

④ 8.15애양 33주년 기념식 및 폐막식

- 일시 : 1998년 8월 15일(토) 오후 3시
- 장소 : 임진각
- 참석 : 이우정, 최만자, 김숙일, 김엘리, 최영숙, 이정자

6)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

- 상임대표 : 이우정
- 정책위원장 : 정현백
- 여성위원장 : 윤수경
- 대의원 : 최만자

① 민화협준비위원회 결성식

- 일시 : 1998년 8월 6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참석 : 이우정, 최만자

② 민화협 준비위 상임위원장, 공동위원장 상건례 (1998. 8.12 12시, 이우정 참석)

③ 민화협 상임위원장 모임 (1998. 8.18 2시, 민화협 사무실, 이우정 참석)

④ 민화협 결성식

- 일시 :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연강홀

·참석 : 이우경, 정현백, 최만자, 한진아, 김숙임, 안수경

⑤민화협 여성위원회 회의 (1998. 1.18 오후 3:30, 김숙임 참석) : 여성위원회 결과보고, 구성의 건, 사업내용 기획의 건

7)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모임

①제2차 통일정책 간담회 (1998. 3.20 오후 4시- 6시, 성가수녀원, 안수경 참석)

·내용 : 북공조작과 안기부 개혁의 과제와 방향, 민간통일단체 네트워크 구축 방향
운영위원 단체 선정

②4월 정기모임 (1998. 4.17 오후 3시, 경실련, 안수경 참석)

·내용 : 남북경협에 실상과 사례 발표

③운영위원회 (1998. 5.12, 민족회의, 안수경 참석)

·내용 : 연대모임 향후 방향 논의

④5월 정기모임 (1998. 5.28,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 안수경 참석)

·내용 : 모임단체들의 북한 방문보고와 우리민족서로돕기회 북한공로돕기 실태 보고
본회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보고

⑤7월 정기모임 (1998. 7.23 오후 4시,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사무실, 안수경 참석)

·내용 : 8.15 대축전과 민화협의 방향

⑥평화군축을 위한 200인 선언 기자회견 (1998 5.21, 프레스센터, 이우경, 최만자, 안수경 참석)

(2) 대외활동

1) 한국여성 NGO 네트워크

①일시 : 1998년 4월 3일(금), 오후 2시

②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회의실

③참석자 : 18명 (18개 단체)

④결의 사항 : 한국여성 NGO는 해체하고 네트워크를 새로 조직하기로 함, 현재 30개 단체 참가 신청서를 접수함. 운영은 5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여연, 여협, 비 소속단체), 재정은 참가단체별 2-3만원씩 내기로 하다.

2) 대동령지속 여성특별위원회

①대동령지속 여성특별위원회 동일관련자 간담회 참석

·일시 : 1998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 참석 : 이우정, 김윤옥, 정현택, 윤수경
- 내용 : 여성통일여당의 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통일관련 여성지도자 간담회

②여성단체장 초청 간담회 참석

- 일시 : 1998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 참석 : 최만자
- 주제 : 여성정책의 주류화

③여성통일관련 정책개발 1차워크숍

-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 오후 5시
- 참석 : 김숙임, 정현택
- 내용 : 여성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통일관련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고 여성의 통일정책과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대화를 함
- 토론자 : 민화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강현 교수, 이철기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④여성통일관련 정책개발 2차워크숍

- 일시 : 1998년 12월 16일(수) 오후 5시
- 참석자 : 민화일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강현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분회 참석 : 김숙임
- 내용 : 참석 단체의 1998년 평화통일관련 사업보고, 각 단체의 역할에 대한 제안과 지원 문제

(3) 기타활동

- 1)정실련 통일협회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평가와 실천과제 제안 발표회 참석(1998.6.12, 안수경)
- 2)강인덕 통일부장관 임명에 대한 통일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 참석 (1998.3.5 오전 10시 30분, 정실련 장담, 윤수경)
- 3)지평회의 여성의원 책 출판(여연 위음)기념회 참석(1998.3.1 오후 3시 - 5시, 최만자)
- 4)안기부의 개혁방향 토론회 참석 (1998.4.2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윤수경)
- 5)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 참석 (1998.4.10 오후 1시~4시, 프레스센터, 최만자)
- 6)제5차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회의 참석 (1998.4.15~17, 한강호텔, 이우정, 김윤옥, 최만자, 조영희)
- 7)아시아시엔발권협의회 사무실 이전 참석 (1998.4.15 2시, 이우정, 정현택, 안수경)

- 8)한국여성개발원 창립 15주년 기념식 참석 (1998.4.30) 오후 3시, 이우정, 최만자)
- 9)여성신문사 이길 참석 (1998.5.14,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최만자)
- 10)유네스코 국제아해센타 전립위한 준비모임 참석 (1998.5.29, 유네스코 회관, 이현숙)
- 11)청와대 오찬 초청 (1998.5.30, 이우정 참석)
- 12)참고여성연합회 생활한복 발표회, 자선음악회 참석 (1998.5.26, 연강홀, 김윤옥, 최만자)
- 13)연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참석 (1998.6.1 알렌관, 최만자)
- 14)서울방송 황정열과 김학준 좌담회 참석 (1998.6.14 윤영선, 노길영, 이혜숙, 고희순)
- 15)한국여성학자협의회 상당소 개소식 참석 (1998.6.27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최만자)
- 16)여성의 전화 15주년 기념 행사 참석 (1998.7.2 한국여성개발원, 이우정, 이현숙)
- 17)장대협 베이징 대회 참석 (1998.10.8-11, 이우정, 김윤옥)
- 18)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참가 (1998.10.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최만자)
- 19)참여연대 군축관련 모임 참석 (1998.10.12 오후 7시, 참여연대, 김엘리)
- 20)내일신문사 5주년 행사 참석 (1998.10.20 오후 7시, 63빌딩, 이현숙)
- 21)가톨릭언론 종교개혁제 참석 (1998.10.27 오후 4시, 기독교회관, 김숙임)
- 22)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토론회 참석 (1998.10.27, 오후 5시, 김숙임)
- 23)한국여성연구소, 위기시대의 여성의 삶과 페미니즘 토론회 참석 (1998.10.31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김엘리)
- 24)뉴욕 방문 (1998.11.9-20, 본회 미국지부 건설 가능성 모색 및 재정 모금 활동, 이우정)
- 25)여성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참석 (1998.11.25 오후 6시, 신라호텔, 최만자, 정현배)
- 26)참여연대주최 요한칼통 초청강연회 참석 (1998.12.23 오전 10시, 참여연대, 김숙임)
- 27)한국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강 개소식 참석 (1999.2.24, 오후 1-3시, 김숙임)
- 28)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일미 신가이드라인 심포지엄 참석 (1999.2.25-28, 일본 도쿄, 이우정, 김윤옥)
- 29)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토론회 참석 (1999.2.26 오후 3시-6시, 기독교회관, 김숙임)
- 30)3.8여성대회 새천년문화제 탈북여성팀 본선대회 참가 (1999.2.27 오후 1시-4시, 한국의 집, 민속극장, 15명 참석)

II. 중점사업 평가

1. 제2차 총회에서 결의한 중점사업

(1) 중점사업 : 남북군축과 화해를 앞당기는 여정들

(2) 중점사업의 배경과 목적

IMF시대와 21세기를 맞아 한반도는 적극적인 평화군축정책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긴장완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평화복지공동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남북한 상호군축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다.

(3) 중점사업내용

1) 군사비예산삭감

① 국방예산 사용에 대한 집행과정 공개와 참여요구

② 국방비 예산 삭감을 위한 청원과 압력활동 전개

③ 머군기저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2) 무기감축문제

① 무기구입의 투명성 요구 (무기수입에 대한 문제제기)

② 대인지뢰번대물동 -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관계 준수, 남북기본합의서 준수라는 차원

③ 군조직 개선 - 효율적인 군조직의 운영 등

2. 1998년 중점사업 실천내용

(1)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초청워크숍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사업란 참조)

1) 사업수행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2) 일시 : 1998년 9월 - 12월, 매월 1회, 두 번째 화요일 6:30-9:00

3) 주제

① 1차 워크숍 : 신세계 군사질서 구도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② 2차 워크숍 : 남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비의 특징

③ 3차 워크숍 : 국내외 군축운동 사례연구와 평가

④ 4차 워크숍 : 군사비 삭감을 중심으로 한 군축운동의 과제와 방향

(25.24 평화의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위원회 사업단 참조)

1)사업수행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11개 여성단체 공동주최

2)일시 : 1998년 5월 23일(토) 오후 1시-3시

3)내용 : ①집대중대통령에게 국방비 삭감을 위한 열서보내기

②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 300인 선언문 발표

③5.24 세계여성의 날 문화행사

④평화기원 나도 한마디 등 전시물과 게시판 길거리 설치

(3)평화군축을 위한 200인 선언 기자회견 참가

1)일시 : 1998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2)장소 : 프레스센터

3)참석 : 이우경, 최만자, 안수경

4)내용 : IMF 금융위기 시대에 군사비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정부에게 이를 촉구함.

(4)주한미군병위비문담금에 대한 축소 촉구대회 연설 참가

1)일시 : 1998년 11월 20일(금) 오전 11시

2)장소 : 종로 3가 탑골공원

3)내용 : 주한미군병위비문담금추진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김윤옥 공동대표가
주한미군병위비문담금의 현황과 축소의 필요성에 관한 연설을 함

(5)국방비에선의 문제전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 참조)

1)일시 : 1998년 11월 27일(금) 오후 2시 - 6시

2)장소 : 경실련강당

3)사업주최 : 광화를 만드는 여성회, 경실련 통일협회 공동주최

4)주제 : 99 국방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내용

①1부 - 주한미군병위에 분담의 조정방안

·사회 : 최만자 (문화 사무총장)

·발제 : 이장희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②2부 - 99국방예산

·사회 : 이장희

·발제 : 방위위의 지송규조계원과 투명성 재고 / 황성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 이철기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③제정 토론 및 정책토론

·토론자 : 김숙영(문화 사무총장), 지만원(시스템발전연구소 소장),

김명갑(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관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참석 : 38명

3. 평가

(1)성과

- ①여성평화운동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평화군축운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 ②4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학살'은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평화군축운동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부분적이나마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러나 평화군축운동의 전문성 강화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켜준 자리이기도 하였다.

(2)과제

- ①평화군축운동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대중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일회적 행사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꾸준한 노력이 요청된다.
- ②평화군축운동을 위하여 보다 폭넓은 국내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평화군축의 대중적 여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요청된다.

III. 각 위원회 사업 평가

1. 정책기획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조영희
- 위 원: 장남식, 김윤옥, 여해숙, 윤미향, 윤정숙, 이현숙, 정경란, 정현백, 김숙임
- 담당국장: 김엘리

(2)사업목표

- 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본 회의 중점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 개발, 편집의 역할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3)사업내용

1)회의

①1차회의

- 일시: 1998년 3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숙임, 조영희, 정경란, 여해숙, 최만자, 안수경
- 정보나누기: 평화운동 동향 / 정경란 발제
- 안건: 중점사업 군축 내용정리에 관한 건, 중점사업 행사 일정 정하기, 위원확보에 관한 건,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지속적 사업 모색

②2차회의

- 일시: 1998년 4월 25일(금) 오후 4시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숙임, 조영희, 정경란, 여해숙, 안수경
- 정보나누기: IMF시대 남북한 군축의 방향과 과제 - 정경란 발제
- 안건: 여성평화운동 강과 기획,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 평가,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일정과 방향성 논의, 위원확보에 관한 건:윤미향을 위원으로 위촉하다

③3차회의

- 일시: 1998년 6월 5일(금) 오후 4시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김숙임, 조영희, 윤미향, 여해숙, 정경란, 김엘리, 안수경
- 안건: 여성평화강과 기획안 검토, 정책기획위원회 사업일정과 방한논의, 52회 행사 준비를 위한 방위비 삭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에 관한 논의

④차회의

- 일시: 1998년 7월 13일(월) 오후 3시
- 참석: 김숙임, 조영희, 정경란, 김엘리, 윤미향, 최만자, 안수경
- 안건: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기획안 논의, 방위비 삭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의 어부에 대한 재검토 논의,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에 관한 100대 과제 평가는 내년 사업으로

⑤차회의

- 일시: 1997년 8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본 회 사무실
- 참석: 김숙임, 정경란, 김엘리, 여해숙, 최만자, 안수경
- 정보 나누기: 분단시대의 군사대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요약발해-정경란
- 안건: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기획안 검토, 하반기 방위비삭감운동에 대한 의견 교환, 김숙임 정책위원장이 사무부총장이 됨으로 정책위원장으로 조영희 위원을 추대

⑥차회의

- 일시: 1998년 10월 1일(목) 오후 4시
- 참석: 조영희, 윤미향, 김숙임, 김엘리
- 안건: 제1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평가, 제2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검토와 토론 방향, 정책기획위원 보강의 전-공통대표 3인과 장남식, 윤정숙을 위촉, 하반기 사업 방향과 1999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누기

⑦임시정책기획위원회

- 일시: 1998년 10월 30일(금) 오후 2시-5시
- 참석: 조영희, 김숙임, 김엘리
- 안건: 제2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학술회의 평가 및 제3차 학술회의와 토론방향

⑧차회의

- 일시: 1998년 11월 19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조영희, 장남식, 김윤옥, 윤정숙, 정현택, 김숙임, 김엘리
- 안건: 제3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평가, 제4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회의 검토 및 토론방향,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 논의, 탈북여성 관련 사업에 대한 방안 논의

⑨차회의

-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오후 5시
-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장남식, 김윤옥, 윤정숙, 정경란, 정현택, 김숙임, 김엘리

- 안건 : 제4차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 평가,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의 전반적 평가와 후속 사업논의, 1999년 본회 사업방향 논의

②9차회의

- 일시 : 1999년 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장남석, 김윤옥, 정현백, 최만자,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 안건 : 1999년 평화여성회 사업방향 논의, 1999년 정책기획위원회 사업제화안 논의

2) 1998년 정책협의회 (3차)

① 일시 : 1998년 9월 12일 (토) 오후 3시 - 9시 30

②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310호

③ 참석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이문우, 이정자, 윤명선, 윤수경, 한진이, 김도주, 정경란,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④ 순서 : 1부 진행 - 최만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총장)

발제 - 현장서와 평화통일운동의 현장 / 김광수 (민족회의 정책실장)

질문 및 토론

2부 진행 -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사무총장)

사무처와 각 위원회의 사업방향 발표

자유토론

토론의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사업방향과 사업과제

토론내용

가) 사무처는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범위는 다양하나, 현 시기에 있어서의 본 회의 과제와 방향을 군축, 교육 등의 경제적 사업과 이를 위한 평화정책 수립, 그리고 평화교육, 탈북여성지원, 사회문화적인 평화운동의 개발 등을 통한 평화결학을 대중 속에 뿌리 내리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과 튼튼한 재정 강화를 위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소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각 위원회의 중점사업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나) 평화교육위원회의 한진이 위원장은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교육을 제안하고, 평화통일사업위원회의 윤수경 위원장은 남북여성교육, 군축운동, 탈북여성지원센터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대외협력위원장이 이현숙 대표는 NGO간의 국제여론 형성과 국제평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대외위의 과제로 제시하고 재정위원회 윤명선 위원장은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을 통한 조직 강화와 재정기반 마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3. 평화군축을 위한 활동

①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 취지

한반도는 21세기를 맞아 평화복지 통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군축정책을 시급히 실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군축은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과업이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비 화종과 인간존엄의 지속가능한 사회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이다. 더욱이 남한은 IMF라는 경제위기에, 북한은 식량부족의 위기에 처한 때에 남북한 군축문제는 현실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그동안 방위비삭감운동, 무기수입반대 등 군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 여성평화운동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형성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군축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과 다양한 방법을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하여 모색, 개발하고자 한다.

② 목표

- 군축운동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국방비 삭감을 위한 전략과 방법개발
- 군축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수집
- 군축운동에 관한 논의와 협력의 틀 마련과 관계형성
- 회원의 전문성 강화와 젊은 여성제도력개발 도모

③ 토론내용

1) 첫째날 : 9월 11일 (금) 오후 6:30-9:00 / 성가수녀원

주제 : 신세계 군사질서 구도에서의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진행 / 최만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총장>
발제 / 홍성대 <서울대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논찬 /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석 : 21명

2) 둘째날 : 10월 9일 (금) 오후 6:30-9:00 / 성가수녀원

주제 : 남북한의 국방정책과 군사비의 특징
진행 /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김창수 <연속회의 정책실장>
논찬 / 김중대 <연북진 국회의원 비서관>

참석 : 15명

3) 셋째날 : 11월 13일(금) 오후 6:30-9:00 / 성가수녀원

주제 : 국내외 군축운동 사례연구와 평가

진행 /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사무총장)

발제 / 노정선 (연세대 교수)

보조발제 I /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

보조발제 II /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참석 : 11명

4) 넷째날 : 12월 11일(금) 오후 6:30-9:00 / 여성사회교육원 회의실

주제 : 군사비 삭감을 중심으로 한 군축운동의 과제와 방향

진행 /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이월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논란 / 정해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참석 : 13명

②1999년 방위예산 축소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일시 : 11월 27일(금) 오후 2시 - 6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업주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경실련 통일협회 공동주최

·주제 : 99 국방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내용

①1부 -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의 조정방안

사회 : 최만자 (본회 사무총장)

발제 : 이강희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②2부 - 99국방예산

사회 : 이강희

발제 : 방위비의 지출구조개선과 투명성 제고 / 황성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국방비 감축의 필요성과 9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 이월기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③지정 토론 및 전체토론

토론자 : 김숙임(본회 사무총장), 지만원(시스템발전연구소 소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관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수(민화협정책실장), 김중대(임북건의원 비서관)

·참석 : 38명

(4) 평가

1) 성과

①본 회의 중점사업인 평화군축활동에 대한 사업은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워크숍'이나 '발위예산 축소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평화군축운동의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킨 자리였다.

②4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 초청워크숍'은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평화군축운동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부분적이나마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러나 평화군축운동의 전문성 강화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켜준 자리이기도 하였고, 사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발제자들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일관되지 못한 참석관계로 보다 진전된 토론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③1998년 정책협의회는 새로이 보강된 사무처의 사업계획과 각 위원장의 사업방향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2) 과제

①여성들이 하는 평화운동의 개념, 철학,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정리가 시급하다.

②평화군축운동을 위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국내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군축운동의 현실적 논리개발과 대중적 접근 방식 발굴을 위한 전문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아울러 국제여성군축운동의 흐름에 상응하는 신속한 정보교환이 요청된다.

③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 제시는 정부 출범 1년 후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사업으로 이행하기로 하다.

④국내외의 정책과 통일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고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활동성이 요청된다.

2. 평화통일사업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윤수경
- 위 원: 고은정순, 민재근, 장도순, 이순태, 오해경, 이금순, 김현미, 전숙희, 어옥금
- 담당국장: 안수경

(2)사업목표

- 탈북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행동을 전개한다.

(3)사업내용

1)회의

①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준비회의

㉠1차모임

- 일시 : 1998년 3월 4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새길 레스토랑
- 참석 : 윤수경, 이현숙, 최만자
- 내용 : 제2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준비 (설문서 검토 등)

㉡2차모임

- 일시 : 1998년 3월 14일(토) 오전 12시
- 장소 : 장충동 가경옥
- 참석 : 윤수경, 신미경, 박영옥, 최만자
- 내용 : 제2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진행 준비

②제1차회의

- 일시 : 1998년 4월 10일(금) 오후 4시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수경, 고은팔손, 장도송, 이금순,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제3차 탈북여성대화모임 질문지 검토, 5.24군축의 날 토론마당 개최에 관한 논의, 4.25북한동포돕기 국제금식의 날 행사에 관한 건, 남북한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가급이원에 관한 건, 군축 학술토론회 경실련 통일협의회와 공동개최에 관한 논의, 위원 확보의 건

③제2차 회의

- 일시 : 1998년 6월 17일(수) 1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수경, 장도송, 이금순, 오혜정,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제5차 탈북여성대화모임 질문지 검토, 제1기 탈북여성대화 모임 평가, 탈북여성 대화모임 향후 방향성 논의

④제3차 회의

- 일시 : 1998년 9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수경, 장도송, 이옥금, 윤명선, 김숙희, 최만자, 김숙일, 안수경
- 안건 : 제1기 탈북여성대화모임 재평가, 제2기 탈북여성대화 모임 기획안 검토와 향후

방향성 논의, 제2기 탈북여성대화모임 초청자 선정, 남북여성교류의 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기획안 검토

⑤제4차 회의

- 일시 : 1998년 12월 1일(화) 오후 6시
- 장소 : 전국공동모금회 사무실
- 참석 : 윤수경, 장도송, 김숙임, 안수경
- 안건 : 남북여성교류 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평가, 제2기 2회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행 평가, 탈북여성과 함께 하는 송년모임 논의, 탈북여성 후속 프로그램 논의, 평통사업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⑥제5차 회의

- 일시 : 1999년 1월 11일(월) 오후 6시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참석 : 윤수경, 김숙임, 안수경
- 안건 : 1998년도 평통사업위 사업 평가, 1999년도 평통사업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

⑦제6차 회의

- 일시 : 1999년 2월 4일(월) 오후 6시
- 장소 : 느티나무 카페
- 참석 : 윤수경, 장도송, 고은광순, 김숙임, 안수경
- 안건 : 1999년도 평통사업위 사업계획, 위원확보의 건

2)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①1기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사업취지 및 목적

-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한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을 상호 이해한다.
- 북한여성들에 대한 실상 파악을 통해 북한 개발시 파악된 대우자세를 모색한다.
- 탈북여성들의 남한 체제적응의 현실을 파악하고 상호협력과 교류방안을 함께 찾는다.

㉡도론자 명단

㉠남측 참석자 (35명) : 이우경, 이현숙, 김윤옥, 정현백, 이정자, 최만자, 안혜영, 오혜경, 야금순, 윤미량, 고은광순, 조영희, 윤수경, 장도송, 정경란, 윤명선, 최경진, 김경애, 권혜순, 박예경, 박영옥, 신미경, 한진이, 손덕수, 양혜경, 김기영, 이선중, 권진혜, 이분수, 윤순녀, 박근혜, 김숙임, 김정미, 김현리, 안수경

㉡탈북여성 참석자 (7명) : 김찬옥, 이주선, 이옥금, 조승희, 서정심, 김순희, 김미자

관사업내용

㉠2차 탈북여성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3월 14일(토) 오후 1시 30분-6시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4층
- 내용 : 북한외 사회화와 교육 (여성의 성 사회화, 유년기의 사회화,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학교교육,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북한의 가정교육 등)
- 참석: 탈북여성 5명, 남한여성 22명

㉠3차 탈북여성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4월 18일(토) 오후 1시30분-6시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4층
- 내용 : 결혼과 가족 (연애, 결혼에 대하여,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하여 이혼과 독산에 대하여)
- 참석: 탈북여성 5명, 남한여성 18명

㉠4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5월 16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4층
- 내용 : 친족관계와 친족상제 (가족관계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대하여, 장례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민속명절에 대하여)
- 참석: 탈북여성4명, 남한여성 14명

㉠5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6월 27일(토) 오후 1시30분-6시
- 장소 : 여성평화의 집 4층
- 내용 :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 참석: 탈북여성3명, 남한여성18명

㉡2기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사업취지 및 목적

다섯차례에 걸친 탈북여성들과 대화모임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이해와 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 2기 대화모임에서는 이를 토대로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이야기를 통해 남한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남한사회의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통일 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토론회 및 단

㉓남측 참석자 (26명) : 이후경, 이현숙, 이정자, 최만자, 안혜영, 오혜정, 고은광순, 조영희, 유수경, 장도승, 정경란, 윤명선, 최경원, 김정영, 권혜순, 이선중, 원천혜, 박규혜, 이경옥, 김경화, 전숙희, 김지경, 김숙임, 김정미, 김열리, 안수경

㉔탈북여성 참여자 (7명) : 조연지, 김순희, 이혜영, 장인숙, 이예란, 김초미, 이옥금

③사업내용

㉑제1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9월 26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여성평화회 집 4층
- 내용 :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이야기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상과 느낌 나누기,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이야기와 어려움 함께 나누기)
- 참석 : 탈북여성 6명, 남한여성 21명

㉒제2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10월 24일(토)~25일(일)
- 장소 : 남원주 복원교육원
- 내용 :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이야기, 공동체훈련, 기체조동
- 참석 : 탈북여성 4명, 남한여성 14명

㉓제3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8년 11월 28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여성평화회 집 4층
- 내용 : 남한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 찾기
- 참석 : 탈북여성 7명, 남한여성 12명

㉔제4차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

- 일시 : 1997년 12월 18일(금) 오후 5시30분~8시30분
- 장소 : 여성평화회 집 4층
- 내용 : 탈북여성과 함께하는 송년잔치
- 참석 : 탈북여성 6명 평화여성회 28명

4.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①'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재개를 위한 활동

㉠공동대표단 회의

-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오전 8시
- 장소: 롯데호텔 신관
- 참석: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최만자, 시메고쉬미즈(일본 도의원)
- 내용: 일본 시메고 쉬미즈 의원 한국방문을 계기로 모에 쉬미즈 의원의 그동안 북한 측과의 면담과정에 대하여 듣다, 9월경에 '토론회'를 제재키로 결정 결정하고 쉬미즈 위원이 계속 북한과 연락하면서 평화여성회에 상황을 알리기로 하다.

㉡쉬미즈 시메고 의원과의 만남

- 일시: 1998년 8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
- 내용: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제재에 대한 진행 과정
- 참석: 이우정, 최만자

㉢베이징 대회 참석

- 일시: 1998년 10월 8일(목) - 10월 11일(일)
- 장소: 베이징
- 내용: 북한여성 집속
- 참석: 이우정, 김윤옥

㉣남북여성교류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위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인적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91-92년 남북여성교류의 물꼬를 더 활발한 접촉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는 1993년 4차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화해협력의 정책에 따라 남북교류가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여성교류의 물꼬가 트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변화된 현실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남북여성교류분야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남북여성교류의 구체적인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해 남북여성교류의 방안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한다.

㉣목표

-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방향을 제시한다.
- 남북여성교류의 대안과 방법을 교환한다.
-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내용

- 일시 : 1988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 주제 :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 사회 : 윤수경(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통일사업위원장)
- 기조발제 : 김윤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정대협 공동대표)
- 토론자 : 윤익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단기적, 장기적 전망과 방안
지은화(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여성운동적 관점에서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방안 제시
통일위원회로 대체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의 지원정책과 계획 및 협력방안 제시
이성대(여성특별위원회 협력조정관) /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성특위 방안 제시

○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참석인원 : 68명

5.외교통일분야에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

①통일부 장관 초청 라담회

○위치

국민정부가 있을 시작한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교류와 협력 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함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통일 정책결정의 과정이나 실행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여성들은 그동안 남북여성교류와 북한 식량지원의 활동들을 성과있게 이루어 내었으며 군축운동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운동에도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과 노력은 사장되고 통일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통일부의 통일운동 지원과 대려가 남성권할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회는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라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통일운동전개와 남북교류에 있어 여성참여가 보장되고 통일운동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 일시 : 1988년 7월15일(수) 오후 3~5시
- 장소 : 남북회담장 3층 대회의실
- 주제 :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여성의 참여와 역할
- 내용 : 인사말씀, 주제강연, 지정질의 3인, 전체토론
- 참석 : 35개 여성단체 대표 48명과 평화여성회 10인, 총 58명 참석

(4) 평가

1) 성과

- ①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이 정기적으로 지속된 최초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나아가 탈북여성들의 안정된 남한생활을 돕기 위한 '진달래와 무궁화'라는 후속모임을 발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탈북여성들의 남한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사업의 통계를 축발시켰다.
- ② 탈북여성과의 대화는 남북한 여성의 삶과 가치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의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데 기여했다. 또한 탈북여성에게 남한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탈북여성들의 후원자로서의 여성단체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깊이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 ③ 탈북여성과의 대화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질문을 미리 작성하여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남한 참가자들의 의욕적인 호기심으로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었으며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 ④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에 즈음하여 개최된 남북여성교류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여성들이 한 남북교류의 과정과 성적을 총망라하여 점검하며, 남북여성교류의 진정한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⑤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은 다소 신경통의 통일정책을 홍보받는 자리가 된 셈이 되었으나, 자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통일정책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과제

- ① 탈북여성들의 보다 안정된 남한생활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1999년에는 '진달래와 무궁화'라는 탈북여성후원모임을 통하여 교육과 상담, 그리고 심리적인 적응을 위한 심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 ② 통일사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을 탈북여성들과의 모임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여성들의 삶과 역할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의 내용이 정리되어 출판되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자료 가치의 문제 여부도 차후 검토하여 이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④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올해도 재개되지 못한 점이 아쉽으나 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습득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요청된다.
- ⑤ 본 위원회의 사업이 군축과 교류 등 다양한 평화통일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에 차중한 경향이 있었으므로, 1999년에는 다양한 평화통일 대중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평화교육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진이
- 위 원 : 박애경, 최영숙, 문화원, 박미순, 김현숙, 손덕수, 한경자, 노미숙, 이귀선
- 담당국장 : 안수경

(2)사업목표

- 한반도 상황에서 요청되는 평화교육 이론체계를 확립한다.
- 청소년 문화제를 통하여 지역활동을 강화한다.
- 평화기행을 통하여 화친활동을 강화한다.

(3)사업내용

1)회의

①제1차 회의

- 일시 : 1998년 3월 28일(토)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진이, 문화원, 박애경, 이귀선,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위원회보에 관한 건, 청소년문화제에 관한 논의,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논의, 평화심포지움에 관한 논의

②제2차 회의

- 일시 : 1998년 5월 2일(토) 오후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진이, 한경자, 문화원, 박애경,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청소년문화제에 관한 논의,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논의

③제3차 회의

- 일시 : 1998년 5월 30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진이, 문화원, 박애경, 박미순, 최영숙, 노미숙,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청소년문화제에 관한 논의,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논의

④임시 회의

- 일시 : 1998년 7월 4일(토) 오후 5시
- 장소 : 대학교 우리집 국수집
- 참석 : 한진이, 박애경, 최영숙, 최만자, 안수경
- 안건 : 제2회 청소년문화제 평가

⑤제4차 회의

- 일시 : 1998년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건이, 돈화령, 박애경, 백미순,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 의건 : 제3회 청소년문화제에 관한 논의, 제3회 분단현장 체험 평화기행 논의, 남북여성교류의 방안개발을 위한 심포제을 기획한 검토

⑥제5차 회의

- 일시 : 1998년 11월 5일(목) 오후 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건이, 박애경, 백미순,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 의건 : 제4회 청소년문화제에 관한 논의, 제3회 분단현장 체험 평화기행 최종 점검

⑦임시 회의

- 일시 : 1998년 11월 29일(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학교 할머니집
- 참석 : 한건이, 박애경,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김현리
- 의건 : 제4회 청소년문화제 평가

⑧제6차 회의

-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한건이, 박애경,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 의건 : '98년도 평화교육위원회 사업 평가, 총회준비에 관한 논의, 위원보장의 건, 1999년도 평화교육사업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샵에 관한 논의

⑨제7차 회의

- 일시 : 1998년 2월 1일(화), 오후 6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박애경,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 의건 : 1999년도 평화교육위 사업계획, 위원보장의 건

2.평화기행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①사업위제 및 목적

-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다.
- 평화기행을 통해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회원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②사업내용

①제2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일시 : 1998년 6월 6일(보)

- 장소 : 파주, 연천일대(경의선 중단점, 화석정, 태봉진만대, 임진강 월북선, 연천역)
- 대상 : 평화여성회 회원과 그외 관심있는 분들(선착순 45명)
- 참석 : 성인 35명, 어린이 9명 총 44명
- 내용 : 평화여성회 소개 및 이자누 선생님의 분단지역 안내

①제3회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여행

-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
- 장소 : 강화도 (천등사, 본오리돈대, 동학해수욕장, 758px, 연미정, 해기봉 등 비무장지대)
- 대상 : 평화여성회 회원과 그외 관심있는 분들(선착순 45명)
- 참석 : 성인 34명 어린이 2명 총 36명
- 내용 : 평화여성회 소개 및 이자누 선생님의 분단지역 안내

3) 청소년문화제를 통한 지역활동 강화

①사업취지 및 목적

①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 미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부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할 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생활한 욕구와 문제를 찾고 부모와 사회와의 의사소통 의지와 능력을 신장시키며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② 아울러 IMF시대에 사회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며, 청소년들의 소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청소년들에게 평화적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적 문화로서의 평화문화를 제시함으로써 비폭력평화행동을 촉진시킨다.

②준비회의

③제1회 청소년문화제 준비회의

가) 상계지역 실무자 기획회의

- 1차 회의 : 4월 15일(수) / 김지선, 백미선(이상지역), 김엘리(평화여성회)
- 2차 회의 : 4월 29일(수) / 김지선, 백미선(이상지역), 김엘리, 안수경(평화)
- 3차 회의 : 5월 13일(수) / 김지선(지역), 김엘리(평화)

나) 상계지역 회의

- 1차 회의 : 5월 8일 (금) / 참여 희망 단체들
- 2차 회의 : 5월 23일(토) / 제1회 청소년문화제 준비회의
- 3차 회의 : 5월 27일(수) / 김지선, 백미선, 이상종 (이상지역), 김엘리(평화)
- 4차회의 : 6월 3일(수) / 김지선, 백미선, 이상선, 이상종, 서영, 김엘리

- 지역대표자회의 : 6월 9일(화) / 각 단체 대표자들
- 5차회의 : 6월 10일(수) / 김지선, 백미선, 이창신, 이상중, 서영, 김영빈, 김엘리
- 6차회의 : 6월 15일(월) / 김지선, 백미선, 이창신, 이상중, 서영, 김엘리
- 7차회의 : 6월 17일(수) / 김지선, 백미선, 이창신, 이상중, 서영, 김엘리
- 8차회의 : 6월 19일(금) / 김지선, 백미선, 이창신, 이상중, 김엘리

㉠제2회 청소년문화제 준비회의

- 1차 회의 : 6월 24일(월)/안수경, 김엘리, 정병국

㉡제3회 청소년문화제 준비회의

- 1차 회의 : 8월10일(월)/ 최만자, 김숙임, 김엘리, 안수경, 상계지역 실무자(김지선, 백미선)
- 2차 회의 : 9월 16일(수)/ 김지선, 김미정(이상 상계지역 실무자), 안수경
- 3차 회의 : 9월 29일(화)/ 김미정(상계지역 실무자), 서정화(성북지역 실무자), 안수경
- 4차 회의 : 10월 12일(월)/ 김미정, 서정화, 안수경
- 5차 회의 : 10월 19일(월)/ 김미정, 서정화, 안수경
- 6차 회의 : 10월 22일(목)/ 김미정, 서정화, 안수경
- 7차 평가회의 : 11월 11일(수)/ 김미정, 서정화, 안수경

㉢제4회 청소년문화제 회의 준비회의

- 1차 회의 : 10월 8일(목)/노지향, 안수경
- 2차 회의 : 11월 17일(화)/김영래, 김엘리, 안수경
- 3차 회의 : 11월 19일(목)/은곡공고 교장, 연구부장, 노지향, 안수경

㉤사업내용

㉠제1회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 “애들이 눈자 평화의 물결을 타고”

- 일시 : 1998년 6월 20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 노원구 상계 근린공원
- 대상 : 노원지역 청소년
- 후원 : 서울특별시, 여성신문,
- 협관 : (사)한세, (주)홈오즈카, 신라명과
- 함께한단체 : 광운전자공고, 노원자활지원센터 청소년고실,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노원청소년수련관, 은곡공고,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행사내용

①평화를 위한 음악당 : 송 경연대회, 사물공연, 다함께 춤을, 시상식

②불일을 여는 장각마당 : 만화전시, 길게그림 함께 그리기, 폐인팅, 사진찍기, 북한어린이 관련 사진 전시

③화해의 놀이마당 : 새끼꼬아 줄넘기, 줄리루프, 3점 슛 농구대회, 제기차기, 투호놀이, 원화장사씨름대회, 시상식

○정정의 노래마당 : 노래경연대회, 댄스공연, 레크리에이션, 도전10곡 노래부르기, 시상식

○청소년 원터 : 청소년 카페, 무료식용장, 상담, 게시판, 낙서판 등

○우리를 마당 (본행사) : 진놀이, 재희사, 인사말, 그룹사운드공연,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각마당 발표회 등

㉔제2회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 “애들이 눈자 평화의 물결을 타고”

·일시 : 1998년 7월 4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 대학교 마로니에공원

·대상 : 청소년

·후원 : 서울특별시

·행사내용

○본행사

종말계 공연/재희사/초청가수공연/ 청소년 춤공연/ 청소년 나도 한마디와 가정 문제상담/ 청소년 춤공연/ 청소년 나도 한마디와 청소년문제 상담/ 청소년연극 공연(“학교에서의 왕따 이야기”)/ 즉석 장미 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응원쇼/ 초청가수 공연/ 대동놀이

○부대행사

청소년 상설 상담소/ 청소년 기 살리기 100가지 쓰기/ 나도한마디/ (우리 함께 살아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청소년 고민 설문분석 결과와 스티커 붙이기/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법 설문분석 결과와 스티커 붙이기/ 글쭙리는 복한 어린이 사진전시

㉕제3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 문화제 : “나의 진로 찾기”

·일시 : 1998년 10월 28(월)~31(토)

·장소 : 노원구 광운대학교 옥외관

·대상 : 노원, 성북지역 실업자 청소년

·후원 : 서울특별시

·참여한단체 : 노원, 성북 나눔의 집 청소년 교실

·행사내용

○첫째날 : 직업, 다시 생각하기 (레크리에이션, 자기발견을 위한 MBTI검사, 우리가 다같이 바라보는 직업의 세계)

○둘째날 : 선배들을 통해 본 나의 길 (A/S기술자, 헤어디자이너, 컴퓨터 편집디자이너, 자영업, 청소년지도자 등 정보고, 상고, 실업고, 공업고를 나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만남과 대화)

○셋째날 : 창업, 우리도 할 수 있다 (외국 청소년들의 창업사례 엿보기, 창업을 위한 강연, 소자본 창업 공모전 등)

○넷째날 : 취업에 필요한 것들 (모의 면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찾기)

○다섯째날 : 스스로 함께 만든 희망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연극, 그리고 공연)

③여섯째날 : 우리가 걸었던 길 (모듬별 비디오 제작, 우리가 만든 작품 상영회, 마
우리와 뭉클이)

②제4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 문화제 : “네 꿈을 펼쳐라”

•일시 : 1998년 11월 29일(일), 오후 5시-7시

•장소 : 대학교 마로니에공원

•대상 : 청소년

•후원 : 서울특별시

•행사내용

청소년 풍물대 공연/ 개회사/청소년 밴드 공연/ 청소년 춤공연/ 청소년 연극공연/ 청소년
의 진로 고민 /청소년 춤 공연/ 청소년 진로 집단상담/ 청소년 춤 공연/ 즉석강의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청소년 노래 공연/ 청소년 밴드 공연/청소년 풍물대와 함께 대들놀이

4)평화교육사업 개발을 위한 준비

①평화교육 취합

㉠사업취지 및 목적

평화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화교육 사업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교
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일시 : 1999년 1월 27일(수), 오후 6시

③장소 : 본회 사무실

④참석 : 이삼열, 고병현, 손덕수, 정원백, 박애경, 최영숙,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⑤내용 :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발제 :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자유토론

(4)평가

1)성과

①평화기행을 통해 회원들을 확대하고 본 회를 홍보하고자했던 취지는 충분히 실효지 못하였으나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내자와 함께 동행함으로
써 본단 현실의 역사적 설명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문단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②청소년문화제는 청소년 놀이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 학생들과 문화 동아리
들이 마음껏 재량을 발표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창
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역내 청소년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③청소년 문화제는 본 회가 청소년단체가 아닌 관계로 청소년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함께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을 본 회 회원으로 조직화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시기상조였으며 본 회 사업 성격상 다소 소모적인 경향도 있었다.

2과제

- ①평화행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는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평화문화를 개발하도록 하는 심도깊은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②다양하고 대중적인 평화교육이 사급하며, 장기적인 전망으로 1999년에는 평화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재개발과 방법의 개발도 요청된다.

4. 대외협력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이현숙
- 위 원: 권혜순, 김대련, 김영, 노길원, 문영미, 성명옥, 윤정희, 정숙자
- 담당국장: 김영리

(2)사업목표: 한반도의 분쟁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국내외 여성평화 연대망을 형성한다.

- ①국내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

(3)사업내용

1)회의

①제1차 대외협력위원회

- 일시: 1998년 9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본 회 사무실
- 참석: 이현숙, 권혜순, 김대련, 노길원, 김숙영, 김영리
- 안건: 1)대외협력위 하반기 사업계획
- 2)대외협력위 위원 보강의 건: 문영미를 위촉하다

㉔제2차 대외협력위원회

- 일시 : 1998년 11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 : 이현숙, 권혜순, 문영미, 김엘리
- 안건 : UNFOR 국제회의 참가 보고
20영문소식지 편집안 검토

㉕제3차 대외협력위원회

- 일시 : 1998년 12월 21일(일), 오후 6시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 : 이현숙, 권혜순, 노길원, 정숙자, 김숙임, 김엘리
- 안건 : 1998년도 사업평가

㉖제4차 대외협력위원회

- 일시 : 1998년 2월 2일(월), 오후 6시
- 장소 : 본 회 사무실
- 참석 : 이현숙, 권혜순, 노길원, 정숙자, 김숙임, 김엘리
- 안건 : 1999년도 사업계획

2)국제활동

가)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42차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

- 일시 : 1998년 3월 2일 - 13일
- 장소 : 뉴욕 유엔본부
- 참석자 : 김명, 윤복남
- 회의 의제 : 여성과 무력갈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나)WILPF과의 연대

㉑10억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탕감서명운동 연대활동

- 일시 : 1998년 3월
- 주최 : 회년 2000 연합 (Jubilee 2000 Coalition in London)
- 경과와 취지

㉒회년 2000년 연합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강대국의 구조적 횡포로 인해 지금까지 가난한 약소국들이 진 빚을 2000년에는 다 탕감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의 협조 권지가 WILPF 제42차 본부에서 왔고 (1998.1.30), 한국에서는 본회가 주관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부채탕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본회는 819명의 1차분 서명서를 받아서 '회년 2000년 연합'측에 전달하였다. 이는 1998년 4월 비명함에서 일련 GR 정상회담에 탁감청원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②WILPF 세계총회와 Goucher College Course에 참가자 파송

- 일시 : 1998년 7월 23일 - 8월 1일
- 장소 : 발티모어(세계총회), 가우셔대학(세미나)
- 주제 : Bread and Roses - Women Define Globalization
- 참가자 : 김영

③WILPF 한국지부 설립에 관한 준비활동

㉠이강재씨와의 만남 (1998. 4.16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우경, 안수경
- 내용 : WILPF 한국 section 구성에 대한 논의

㉡준비회의 1차 (1998. 6.29 오후 2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우경, 최만자, 조영숙, 이강재
- 내용 : WILPF 한국 section 조직 재구성 및 총회 참석 준비

㉢준비회의 2차 (1998. 7.14 오전 11시)

- 참석 : 최만자, 이강재
- 내용 : 총회자료준비

공분 회 대표단 회의

- 일시 : 9월 29일(화) 12시
- 장소 : 연동교회
- 참석 : 이우경, 이현숙, 최만자
- 내용 : WILPF 참여는 개인차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기로 결의하다.

④WILPF 인턴십 과정에 정경란 회원 파견

- 기간 : 1999년 1년간
- 채류지 : WILPF 본부, 제네바
- 장위

①1997년 11월 WILPF 제네바본부를 이현숙 중등대표가 방문하여 바바라 옹부와 상 호형평관계를 다짐하고 인턴십 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②인턴십 과정에 대한 소개를 국내에 홍보하고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정경란 회원 이 선발되었고 본회 추천을 받아 WILPF에 송모하였다. WILPF의 심의를 거쳐 1998년 8월에 인턴으로 확정되었다.

①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개최

•사업주체

①국제적 Coordinator : IFOR

②국내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1개 여성단체 공동 주최

•일시 : 1998년 5월 23일(토) 오후 1:00 - 3:00

•장소 :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참석인원 : 약 200여명

•목적

①세계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세계적으로 알린다.

②국내의 평화와 군축을 촉구한다.

•배경 : 북경여성대회에서 NGO 여성단체들이 결의한바대로 1996년부터 5.24일이면 세계 각국의 여성단체들이 동시에 각 지역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행사를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1997년에 본회가 단독적으로 평화선언문 발표와 북한동포돕기를 하면서 5월 24일을 기념하였다. 반면 1998년에는 본회만이 아니라 11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 개최하였다.

•내용

①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방비 삭감을 위한 엽서보내기 : 총 10,000봉

②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 300인 선언문 발표, 이를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청와대, 국방부 장관, 미대사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

③5.24 기념을 위한 문화행사 :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을 지원하는 행위예술,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나도 한마디, 평화세상과 통일세상을 위한 노래공연, 평화를 위한 출공연

④질거리 전시

-군축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스티커 붙이기

-원 천에 평화를 기원하는 나의 한마디 의견 쓰기

-방위비 현황 비교표

•의의

①여성들의 평화의지를 강력히 표현하다

②대중들에게 평화군축에 대한 문화적 홍보를 하다

③특히 IMF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군비축소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다.

•후속작업 : 함께 참여했던 11개 여성단체들이 매년 5.24행사를 공동개최하기 하다.

②IFOR주최 국제 Consultation 참석

•일시 : 1998년 11월 3-8일

•장소 : 남 인디아 Kerala

•주최 :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s Women Peacemakers Program

•주제 : Women and Conflict Resolution

•목적

- ㉠ 갈등해소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평화활동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눈다
 - ㉡ 여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접근방법이나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 갈등을 야기시키는 장애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는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다.
- 본회 참석 : 이현숙

(3) AFSC와의 관계

① 방문

- 일시 : 1998년 7월 16일(목) 오전 10:00 - 11:00
- 내방자 : Karin, Jhon
- 내용 : 본회와의 연대, 후원단체 연결
- 참석 : 최만자

② Karin Lee, John 만남

- 일시 : 11월 16일(월) 오후 7시 30분
- 내용 : 활동사업에 관한 의견 교환
- 참석 : 이현숙

③ 젊은 활동가 중심의 워크샵 개최를 위한 Jhon과의 만남

- 일시 : 12월 15일(화), 오후 6시
- 내용 : 관용과 화해에 관한 워크샵개최에 대한 논의
- 참석자 : Jhon, 김숙임,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주회의)

④ 젊은 활동가 중심의 워크샵개최를 위한 Jhon과의 두 번째 만남

- 일시 : 3월 2일(화), 오후 2시
- 내용 : 워크샵내용과 시기 논의
- 참석자 : Jhon, Jan J. Sunoo, 김숙임,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4) UNESCO 평화연구 준비회의 참가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

① 1차, 2차 준비회의 참가

- 일시 : 1998년 6월 10일(수), 1998년 8월 31일(월)
- 장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
- 본 회 참가자 : 한진이, 이현숙 (1차) / 이현숙, 김숙임 (2차)
- 의제 : 평화연구 국제 워크샵 준비

발제 : 유네스코의 평화문화 프로그램 / 이삼열 교수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 이서할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군축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과제 / 한용섭 국방대학원

②국제심포지엄 참석

- 일시 : 1998년 11월 20일 (금) - 21일 (토)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본 회 참가자 : 김숙임, 정현백, 손덕수, 정경란, 한진이

(5)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참석

- 일시 : 1998년 9월 16일(수)-17일(목)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 주최 :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여성의 전화, 장대협, 독일에버브재단, 미국헌우봉사회
- 주제 : 아시아의 여성인권, 무력갈등과 성폭력
- 본 회 참석자 : 이우정, 김윤옥, 김숙임, 김영, 이현숙

3.국내 연대활동 : 자세한 내용은 1. 사무처 보고 참조

①한국여성단체연합

- 임원회 : 최만자 사무총장 참석 (서기)
- 사무국장 회의 : 안수경 조직국장, 김연리 정책국장 참석

②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 공동의장 : 이우정 수석대표
- 정책위원장 : 정현백 공동대표
- 여성위원장 : 윤수경 평화통일사업위원장
- 대의원 : 최만자 사무총장

③남북농업협력발전과 협력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 대표자 회의 : 이우정 수석대표 참석
- 실무책임자 회의 : 최만자 사무총장 참석
- 실무자회의 : 안수경 전 사무국장 참석
- 10월 경 탈퇴

④한국대인지뢰대책협의회

- 공동대표 : 김윤옥 공동대표
- 실무책임자 회의 : 최만자 사무총장 참석

⑤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8.15대축전 남측추진본부

- 상임의장 : 이우정 수석대표
- 정책위원회 : 안수경 조직국장 참석

⑩북한동포돕기 국제급식의 날 한국위원회

- 상임고문 : 이우정 수석대표
- 대변인 : 이현숙 공동대표
- 실행위원 : 최만자 사무총장

4)홍보 활동 : 영문소식지 발행

①목적

- ①본회의 사업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
- ②본회의 사업이나 한반도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한다.
- ③국제단체들과 정보 교환 등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②발행횟수 및 크기 : 1년에 2번, A4 크기

③발행부수 : 여성단체, 평화단체, 각대학, 외국정부, 개인회원 등에게 배포할 정도

④발행 예정일 : 1999년 3월 경

(4)평가

1) 성과

- ①WILPF, IFOR, AFSC 등 국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로젝트,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②국제보건의 활발한 참여와 대응은 본회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내의 여성평화운동의 본원지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 ③5.3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의 두 번째 행사는 본회를 넘어선 여성단체의 군축 운동에 대한 연대망을 구축하는데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적 행사를 가미함으로써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회적 행사로 그친 감도 있었다.
- ④위원회 단위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국내의 연대활동과 긴밀하게 결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주로 국제관계에만 주력한 결과를 가져왔다.

2) 과제

- ①국제단체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면서 국제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감각이 요청되고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영어에 능통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의 조직이 필요하다.
- ②국내 여성평화운동 소식을 국제적으로 신속히 홍보할 필요와 대책이 요청된다. 이는 영문

소식지와 인터넷의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③남북한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국제적 관계를 모색하고, 중국 등지의 발목 여성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기로 하다.

④본 위원회의 사업목표를 국내연대활동은 제외하고 국제연대활동으로 국한하기로 하다.

5. 재정조직관리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
- 위 원 : 공민아, 서미숙, 박선희, 박형옥, 윤경진, 최경진, 김정화
- 담당국장 : 안수경

(2)사업목표

- 1998년도부터 재정과 조직관리위원회로 됨에 따라 회원확보와 회원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평화여성회의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금 확장

(3)사업내용

1)회의

①후원회원 확보를 위한 만남

- 일시 : 1998년 4월 9일(목) 6시
- 장소 : 하얏트 커피숍
- 참석 : 윤명선, 안수경, 명승수
- 내용 : 동서화합을 위한 사업과 후원회원 확보 문제

②제1차 회의

- 일시 : 1998년 9월 5일
- 장소 : 본회 사무실
- 내용 : 하반기 재정과 회원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참석 : 윤명선, 최만자, 안수경

③제2차 회의

- 일시 : 10월 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사무실
- 내용 : 재정현황 보고, 재정조직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과 후원회 조직의 분리 및 활성화, 회원의 날 행사 기획
- 참석 : 윤명선, 서미숙, 김숙일, 안수경, 김엘리

④ 제3차 회의

- 일시 : 2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사무실
- 내용 : 평화사랑큰마당 평가, 1998년도 사업평가 및 회계결산 검토, 1999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논의
- 참석 :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김숙일, 안수경, 김엘리, 장민혜

2) 재정보금활동을 위한 지방 순회

① 제1차 지방순회 : 수원 고등교회

- 일시 : 4월 26일(일) 오후 1:30~5:00
- 강연 제목 : 여성과 평화
- 강사 : 이우정
- 본회 참석 : 윤명선, 최만자

② 제2차 지방순회 : 울산 평강교회

- 일시 : 1998년 6월 26일(금) 오전 11시
- 강사 : 최만자
- 본회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윤수경

③ 제3차 지방순회 : 목포대학교

-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 오전 11시
- 강사 : 이우정
- 본회 참석 : 윤수경

④ 제4차 순회 평화강연 : 미국 뉴욕

- 일시 : 1998년 2월 5일~15일
- 참석 : 윤명선, 이현숙, 손덕수

3) 후원회원의 밤

- 일시 : 1998년 5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8층

- 참석 : 후원회원 4명, 재경회원 4명, 운영위원 5명, 기타 4명
- 내용 : 평화여성회 소개 및 후원회원 인사와 친교

4)회원의 날 : 평화사랑큰마당 특별추진위원회

(가)사업개요

- ①제목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 2주년 기념, 평화기금마련을 위한 평화사랑 큰 마당
슬로건 : 느티나무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Peace is a human right, 평화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 ②일시 : 1999년 1월 23일(토), 오후 12시 - 밤 10시

- ③장소 : 철학아당 느티나무

④목적

- ㉠평화여성회 창립 2주년을 즈음하여 평화여성회의 내적 기반을 다진다.
- ㉡회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한다.
- ㉢후원금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⑤행사 내용

㉠관대

- 티켓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을 이용한 음료, 요리, 음식 판매
- 기증품 판매 (회원, 후원자 등의 50여점의 기증품을 모아 일정가격을 붙여 판매)
- 구경상품 판매 : 가자미식혜, 떡가래, 피누, 녹차 등

㉡시간대별 이벤트 : 시간대별로 함박소를 준비하여 참석자의 흥미와 참여를 증폭

- 회원들과 탈북여성들의 강기 발표
- 연예인 창조 출연 : 유열, 문성근, 예쁜아이들 등
- 다함께 노래부르기, 댄스파티

㉢시간대별로 참석자 또는 단체 등을 소개

(2)구성 : 위원장 - 윤명선

위 원 -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김경화, 최현숙, 윤수경

담당실무 - 장민혜

(3)회의

①제1차 특수위 회의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후 2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윤수경, 김숙임, 김행리, 안수경
- 안건 : 기획안 검토 - 명칭, 시기, 목적, 목표액, 참여자, 주최, 내용

②제2차 특추위 회의

- 일시 : 1998년 11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김숙임, 김엘리, 안수경, 장민혜
- 안건 : 슬로건, 일시, 장소, 목적, 주관, 행사내용, 전책일정, 예산안

③제3차 특추위 회의

- 일시 : 1998년 12월 16일(금) 오후 3시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안수경, 장민혜
- 안건 : 슬로건 확정, 장소 확정, 티켓 배분, 협찬, 기증품, 구경상품, 메뉴, 프로그램, 소모임 논의

④제4차 특추위 회의

- 일시 : 1998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김경화, 김숙임, 김엘리, 안수경, 장민혜
- 안건 : 티켓배분 일정 확인, 기증품, 음식준비 담당자, 협찬 진행 확인, 구경상품 확정, 행사장 규모 점검, 프로그램 기획,

⑤제5차 특추위 회의

- 일시 : 1999년 1월 8일(금) 오후 4시
-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김경화, 최현숙, 김숙임, 김엘리, 장민혜
- 안건 : 티켓배분 및 기증품 접수 점검, 홍보, 협찬 점검, 구경상품 담당 및 기증 점검, 메뉴 확정, 행사당일 담당자, 프로그램 점검, 출연자 섭외상황 점검,

⑥제6차 특추위 회의

- 일시 : 1999년 1월 1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김경화, 김숙임, 안수경, 김엘리, 장민혜
- 안건 : 메뉴 및 메뉴가격 확정, 프로그램 확정, 주방 및 서빙 담당자 점검, 출연자선출, 행운권 추첨 논의

(4)후원 : 이희호, 국민회의 비둘기회, 이복희, 장상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 전국연맹, 장로교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국제육수수재단,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여장여권 도회 전국연합회, 대동명지속 여성특별위원회, 주몽사회복지관, 한국여성징차연맹, 가정법률상담소, 국민회의 여성교, 여성자원금고,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여성교회, 선명회, 안양여

성의 전화, 한국어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 전화, 기장여성의 전화, 한국정치문화연구소, 기타 개인 후원자

(5)협찬 : 제일제당, 동산출판, 대한자, 이삭회, 새달교회

(6)물품기증자 : 이우정, 최경원, 박애경, 이경자, 김숙연, 김지정, 유열

5)회원 소모임 구성

①취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약 300명의 발기인으로 창립한지 1년 8개월이 된 후, 현재 약 350명의 회원과 10여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소수의 회원만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다수의 회원들은 평화여성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평화여성회가 보다 안정적인 평화운동 시민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을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여성평화운동을 꾸리고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요청된다. 그래서 10월-12월, 회원들의 의견 요청서를 받아서 그들의 희망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원 소모임을 구성하고, 소모임을 통하여 평화여성회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회원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보다 탄탄한 평화여성회의 조직을 형성하고자 한다.

②목적

- ①여성평화운동의 사회문화적 내용을 개발하고 대중적 확산을 도모한다.
- ②회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자립을 도모한다.
- ③회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 ④평화여성회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③소모임의 내용과 종류

- ⑤평화명상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체조, 음악, 춤 등 문화활동
 - 반장 : 손민수 ·부반장 : 김경화
 - 내용 : 자신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수련방식을 도입하여 평화심성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평화생활방식을 모색한다.
- ⑥평화기행
 - 반장 : 장도송 ·부반장 : 정정자
 - 내용 : 변질화적인 현장이나 또는 평화를 만들고 있는 현장 등을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보다 평화적인 생활방식을

한 데 대하여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는 어느 누구의 두드러진 헌신보다도 모두의 마음과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회 회원의 날로 기념하며 모이는 “느티나무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는 행사에도 재정부원들과 회원들의 풀뚝뚝한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이 행사가 때를 거듭할수록 회원간의 관계가 두터워질 뿐 아니라, 이 사회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알려져 평화운동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1999년에는 ‘재정과 회원’ 두 단어가 하나의 맥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소그룹활동을 통하여 회원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서로 걱정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결혼하여 아이 낳고 국면학교에 보내고 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30대 회원들을 많이 찾아내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해외에 흩어져있는 한국인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지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재정을 위해 모두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성과

- ① 재정부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평화사랑관마당을 통해 사업기금마련의 목표액을 달성하였다.
- ②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화의식 확산을 위한 소모임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회원참여의 가능성을 열게 하였다.

3) 과제

- 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원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대중적인 사업 개발이 요청되다.
- ② 본회의 재정기반이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납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6.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탈북여성 생활 실태 조사사업

① 사업 수행시기 : 1998년 8월 - 12월

② 사업 주체

- 주관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③ 조사목적과 기대효과

1) 현실적 측면

- 탈북여성들의 경제 사회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 그래서 탈북여성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기획, 실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②이론적 측면

-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외식과 통일외식을 읽어보고자 한다.
- 그래서 탈북여성들과의 상호이해를 높여서 통일과정에서의 민족 이질감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자료적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④조사대상수 : 87년 이후 탈북한 20대 이상의 여성 34명

⑤조사방법 : 탈북여성들의 본 회 방문 또는 조사원의 탈북여성 집 방문을 통한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

⑥사업진행 참가자

1)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 최만자

-위 원 : 김숙임, 안혜영, 오혜경, 이금순, 조영희

2)조사원 : 김숙임, 김경미, 김엘리, 안혜영, 오혜경, 이산중, 이인경, 원은복

3)설문작성 자문 : 이상경 <현대리서치 소장>

4)조사통계 담당 : 김희진 <현대리서치 차장>

5)조사보고서 작성 : 김엘리

⑦사업진행 일정

1)8월 : 조사연구위원회 구성 및 설문지 작성

-8월 18일까지 :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구입

-8월 30일까지 : 조사설문지 1차 작성

-8월 21일 : 실태조사연구위원회 1차 회의

-8월 24일 : 설문지 테스트 (탈북여성에게 시범적 설문조사)

-8월 27일 : 조사설문지 2차 작성

-8월 28일 : 통일부에게 탈북여성 평단 요청을 위한 방문

2)9월 : 설문조사

-9월 3일 : 국가안전기획부에게 탈북여성 평단 요청

-9월 11일 : 실태조사연구 위원에게 개별 자문

-9월 14일 : 조사설문지 자문

-9월 16일 : 조사설문지 3차 작성 완료

-9월 17일 : 조사설문지 인의

-9월 18일 : 조사원 사전 교육

-9월 18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9월 19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9월 24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9월 25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9월 28일 ~ 10월 2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또는 탈북여성집)

3)10월 : 설문조사를 위한 탈북여성명단 재요청

-국가안전기획부에게 탈북여성명단 재요청

-통일부에게 탈북여성명단 협조 재요청 및 자료구입을 위한 방문

4)11월 : 설문조사 및 설문결과 전산 처리

-11월 2일 ~ 11월 6일 : 탈북여성 설문조사 (장소 : 본 회 사무실 또는 탈북여성집)

-11월 10일 ~ 11월 16일 : 코딩 및 컴퓨터 통계 작업 (원대리서치)

-11월 20일 : 여성특위에게 중간보고서(1차보고서) 제출

-11월 27일 ~ 11월 30일 : 여성희식조사에 대한 추가 설문지 작성 및 검토

5)12월 : 조사보고서 작성 및 실태조사 발표 및 정책토론회

-12월 1일 ~ 12월 4일 : 여성희식에 관한 전화 실태조사

-12월 7일 ~ 12월 11일 : 통계자료 정리 및 자료 구입

-12월 7일 ~ 12월 14일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2월 18일 :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비공개)

-12월 21일 ~ 12월 30일 : 최종 사업보고서 작성 및 여성특위에 제출

⑧조사내용

1)경제생활실태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직업, 소득, 주거형태, 지출순위, 직장생활 희망 여부와 희망하는 직업, 경제에 대한 인식

2)사회문화생활 실태: 남한사회에서 인간관, 여가시간의 활용, 직장생활, 사회활동의 정도와 종교생활, 정보 획득

3)가족간의 관계: 현재 가족 형태, 결혼 유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점, 남한남성과 결혼한 탈북한 여성의 경우 어려움 점, 남한 출신 남성과 결혼한 출신 남성의 선호도 및 비교, 남북한 가정생활의 어려움, (시)부모와 또는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

4)주거생활: 남북한 주택문제의 어려운 점, 현재 어려움의 정도

5)여성희식 : 남성의 가사노동 활동에 관한 인식,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인식, 여성 생활에 있어서의 남성에 대한 의존도, 순결의식, 여성의 행복한 삶의 방식, 자녀양육의 전달자, 남아선호사상

6)남한사회에 대한 인식: 남한사회의 문제점, 여성관련 문제 해결 정도, 북한여성과 남한 여성과의 의식 및 지위 비교, 남북한 여성의 장단점, 남한 사회에 대한 인지도

7)통일에 대하여: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일이후의 좋은결과 어려운 점,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8)진반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만족도: 남한 생활의 어려움과 만족도, 남한 생활의 적응 정도,남한 생활에서 필요한 점,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의 정도, 현재 필요한 교육의 내용

미래인 신상: 연광, 학력, 탈북이유와 시기, 가족동반여부, 북한에서의 직업,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정도, 당원여부

⑤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비공개)

-일시 : 1998년 12월 18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여성사회교육원 회의실

-참석자 : 37명

-내용

조사결과 발표 :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정책국장)

지평토론 : 조연지 (탈북여성)

오혜정 (한국여성평화연구소 조사연구위원, 서울대고구려학통일사목위원)

윤정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정책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차장)

(2) 연구총서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 구성 및 편집회의

(1)구성

-편집위원장 : 정현택

-편집위원 : 김숙임, 김현미, 손덕수, 윤덕희, 이금순, 조영희, 차인순

-자문위원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이상열, 고병현, 강경구

(2)회의

가)1차 편집회의 (1998.11.11, 수, 오후 4시) : 연구총서의 성격과 편집 방향 논의

나)2차 편집회의 (1998. 12.2, 수, 오후 6시) : 연구총서 편집기획

다)3차 편집회의 (1998.12.29, 화, 오후 4시) : 연구총서 편집 기획

라)4차 편집회의 (1999. 1.19 화, 오전 10시 30분) : 연구총서 편집 기획

마)5차 편집회의 (1999. 2.9 화, 오전 10시 30분) : 연구총서 편집 기획,

평화개념에 대한 논의 / 발제 - 차인순

(3)사업내용

가)연구총서 제목 : 가정 「여성·평화」

나)발행 목적

①연구작업의 활성화 : 여성해방의 태에 선 평화연구의 심화와 발전 그리고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작업을 활성화한다.

②평화이론가의 양성 : 평화연구에 관한 여성이론가들을 조직하고 발굴하며, 그들에게 발

표할 장을 제공한다.

③평화의식의 확산을 위한 이론적 축대 : 평화연구자들에게는 보다 균형적인 평화연구의
논의를, 일반인들에게는 평화의식 확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다.

다)성격

①대상 독자 : 평화에 관심있는 학자, 일반인, 사회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학생

②연구총서 내용의 수위 : 이론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조화

라)횟수: 연 1회

마)발행 예정일 : 1999년 6월경

(3)이사회

1)1998년 이사회

- 일시 : 1998년 2월 28일(토) 오전 10:00 - 11:00
- 장소 : 본회 사무실
- 참석 : 이우경, 이문우, 최만자, 이현숙
- 안건 : 1998년도 사업안 확정, 심일원장 인준

2)1999년 상반기 이사회

- 일시 : 1999년 2월 9일(화)오후 6시
- 장소 : 송원
- 참석 : 이우경, 각분이, 김윤옥, 윤영애, 이문우, 최만자, 김엘리
- 안건 : 1998년도 사업평가, 1999년 사업계획, 이사장 선출

감 사 보 고 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귀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1998년 1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한 결과 착오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감사 전>

1. 현금 출납부
2. 원장
3. 수입지출 결의서
4. 봉장

1999년 2월 23일

감사 이 문우
문영애



1999년 사업계획안

(1999. 3.1 - 1999. 12.31)

1. 사업방향
2.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1. 1999년 사업방향

1. 평화여성회 1999년 사업방향 :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

(1)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식을 확산시킨다
-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강화한다.
- ③ 내부 사업기반을 다지고 회원확대에 힘쓴다

(2) 사업방향

① 평화교육사업 활동

- 평화교육 확산과 평화교육 당위성을 여론화시키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여성대중을 위한 평화교육 사업 실시
- 교사, 공무원, 사회운동단체 지도자를 위한 전문 평화교육 사업 준비
- 통일교육지원법의 현실적 정착을 위한 대정부 활동
- 초중고등학교, 일반 사회교육에서 평화교육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제언활동

② 회원들의 평화의식 내면화와 사회적 확산을 위한 활동

-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 활성화 : 평화명상, 평화기행, 평화학습, 탈북여성후원모임, 모니터 활동, 컴퓨터 통호회 등
- 언론매체를 통한 평화 캠페인 활동

③ 통일사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

- 남북여성교류 제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
- 국내 탈북여성들에 대한 생활지원 및 관계 형성, 국외 탈북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간계모색
- 통일 후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화 모색

④ 평화군축을 위한 활동

- 평화군축 당위성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중활동
-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 2000년 국방예산의 삭감과 사회복지 증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
- 대인지외제거를 위한 활동
- 국제 여성평화군축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

II.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1. 정책기획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최만자 (안)
- 위 원 : 김윤옥, 이현숙, 정현백 (공동대표 3인), 강남식, 윤미향, 윤경숙, 조영희

(2)사업목표

-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 제시 활동

(3)사업내용

①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여성평화운동의 장기적인 전망 마련

②여성평화운동 집합을 위한 학습

1) 사업목적

- ①여성평화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방안을 개발한다.
- ②여성평화운동의 전문성 고양과 대중적 확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③여성평화운동을 위한 여성지도력을 개발한다.
- ④여성평화운동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학습내용

- 1차 - 세계평화운동의 흐름과 과제
- 2차 - 한국평화운동의 고찰과 여성평화운동의 방향 모색
- 3차 - 세계 군사화와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 4차 - 지구화시대의 민족문제와 여성의 입장
- 5차 - 군사주의와 여성
- 6차 - 평화심성 개발과 평화철학 확산을 위한 대중평화운동의 모색

③사업방식

①사업횟수 - 매월 1회, 총 6번

②사업방법 - 이론과 활동의 전문가를 초빙,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

③사업대상 - 본 회 회원, 여성활동가, 학자, 전문연구원, 주요부처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약 30여명.

④현 정부의 통일, 외교, 군사부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활동

1)통일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제반 정보 수집

2)현 정부의 정책과 통일관련 정부 각 부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발표

3)정부 통일정책부문에서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

4)통일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제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언활동
(형식은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5)일본 군사대국주의 <알비 신 가이드라인> 대응과 관련한 심포지움 개최

6)정세에 따른 사안별 입장 표명 (형식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④타 위원회 사업지행을 위한 정책활동

1)평화교육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

2)남북여성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활동

3)1998년 평화교육을 위한 전문가 위상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평화교육운동의 연대망 구축 :
토론자, 활동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교육관련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기적인 모임

4)2000년 평화예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입장 발표

2. 평화통일사업위원회

(1)위원회 구성

·위원장 : 고은실 <안>

·위원 : 고은광순, 배옥영, 윤수경, 오혜경, 이금순, 이순제, 이옥금, 장도송

(2)사업목표

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②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3)사업내용

①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한 활동

- 아래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재개를 위한 다각적 모색
- 기타 남북여성 교류를 위한 다각적 모색

②평화군축을 위한 활동

- 방위비 삭감을 위한 의정감시단 발족 및 활동
- 2000년 방위예산 삭감과 사회복지 증대를 위한 공청회(또는 토론회) 개최
- 8.15 통일 대축전 시 평화군축을 위한 캠페인
- 대인적외제거를 위한 활동

③탈북여성모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 탈북여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실시
- 남북한 통합사회를 위한 공존모델 개발
- 탈북여성과의 모임(명칭: '진달래와 무궁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④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내 연대활동

3. 평화교육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이은선 (안)
- 위 원: 강선미, 문화령, 손익수, 박애경, 박미순, 최영숙

(2)사업목표

- ①평화교육의 통일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다양한 활동
- ②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력 개발
- ③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

(3)사업내용

①평화교육 심포지움 개최

- 일시: 1999년 4월 초
- 주제: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②평화교육 실시

㉠여성대중을 위한 평화교육

- 일시 : 1999년 6월 중
- 대상 : 일반여성, 본 회 회원
- 횟수 : 10번~12번

㉡여성지도력 개발을 위한 평화교육

- 일시 : 1999년 9월 중

③분단 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

- 일시 : 4월, 7월, 10월 중
- 대상 : 본 회 회원, 일반인 선착순 45명

④2000년 평화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정보수집과 준비

- 대상의 확대 : 교사, 공무원, 일반인 등
- 평화교육 주제의 세분화 : 예)갈등해소, 심성개발 등
- 위탁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

4. 국제협력위원회

(1)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이현숙 (안)
- 위 원 : 권혜순, 김대련, 노길림, 문영미, 윤정희, 정숙자

(2)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형성
- ③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 ④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조직과 역량 강화

(3)사업내용

①헤이그 Appeal for Peace 참가

- 일시 : 1998년 5월 11일~15일
- 장소 : 헤이그

②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들의 날

- 일시 : 1999년 5월 24일
- 내용 : 군축에 관한 사안을 중심으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및 행사
- 주최 : 10여개 여성단체와 공동주최

③AFSC가 후원하는 화해와 관용에 관한 핵심 공동계획

- 일시 : 9월 중
- 대상 : 젊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④평화단체 대표들과의 개별적 간담회

- 주제 : 동북아 평화와 군축 / 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 대상 : 미국평화연구소, 아시아재단, 독일에버트재단, AFSC 등등

⑤국제 활동가 초청 강연회 개최

- 내용 : 갈등해소, 화해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단독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본회 평화교육의 한 강화로 배치하는 것으로
- 후원 : IFOR

⑥2000년 국제평화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준비 : 준비위원회 구성 및 기획

⑦평론 소식지 발행 연 2회

⑧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조직 및 활동

- Teresa Park 인턴 활동 (6월부터 2개월간)
-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조직 : 인터넷 자료수집, 외국자료 정리

⑨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의 현황과 활동내역 등에 관한 정보수집

- 각 단체들의 소식지나 발행물 등을 구독
-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교섭
- 외국에 주재한 회원들과의 정보교환

5. 재정조직위원회

(1)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윤명선(안)
- 위 원 : 김경화, 박형욱, 서미숙, 최경원, 최현숙

(2)사업목표

- ①소모임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 ②회원, 후원 회원 조직 정비와 관리를 통한 재정 활성화
- ③평화여성회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3)사업내용

- ①회원 소모임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활동
 - 현재 활동 중인 소모임 : 평화명상, 평화기행, 탈북여성후원모임(진달래와 무궁화)
 - 준비 중인 소모임 : 평화학습, 모니터 활동, 컴퓨터 동호회 등
- ②후원회원의 발 개최
 - 1999년 상반기
 - 목적 : 후원회원의 확대와 우호 증진
- ③재정모금을 위한 순회강연
 - 대상 : 국내외 단체, 교회 등
 - 목적 : 평화의식 확산과 후원자 확대
 - 후원 : 아시아나 항공
- ④회원의 날 준비 및 개최
 - 일시 : 2000년 총회와 함께 (1월 경)
 - 내용 :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축제
- ⑤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개최
 - 일시 : 하반기
 - 내용 : 평화사랑콘마당의 형식으로

6. 기타 : 홍보활동

- 1) 본 회 소식지 연 4회 발행
- 2) 언론매체를 통한 본 회 소개 및 평화연계인 활동
- 3) 기타

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구성

1) 이사회

· 이사장 : 김윤옥

· 이 사 : 파본이, 윤영애, 이문우, 이현숙, 최만자

2) 원장 : 최만자

3)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현백

· 편집위원 : 김귀옥, 김숙임, 김현미, 박현선, 손덕수, 윤덕희, 이금순, 조영희, 차인순

· 자문위원 : 이우경, 김윤옥, 이현숙, 강경구, 고병현, 이삼열

(2) 1999년 사업계획안

1) 탈북여성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 1999년 3월 중순

2) 연구총서 「여성·평화」 발행 : 1999년 6월

3) 탈북여성관련 연구

- 1998년 탈북여성과의 대화모임에서 진행된 내용을 분석, 평가

- 탈북여성과의 심층적 면접 또는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4) 여성·평화 심포지움 개최 : 1999년 하반기

5) 평화교육 교재 발행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

1999년 월별 사업계획안

월	경제기획위원회	최화양인사결과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각위원회	한국여성평화연구소	기타
1							수요일
2							수요일
3	임대인기아드라인 대 중 정보지령 개회			전문소식지 발행(1)		일본여성성에 조사발표 및 토론회 진행(중간)	제3차 정기총회(4일) 소식지 발행(1)
4	여성평화운동 정기학 습 개시 (1)	군속활동을 위한 여성간사 단 학습 (1)	평화교육상호포럼 발표기원(1)	2000년국제성포지움 준비위원회 구성 종북여성화를 위한 발표단체대표들의 간담회 개시	순회강연	탈북여성관련 연구시작	수요일
5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군속활동을 위한 여성간사 단 학습 (2) 탈북여성교육사업 포럼그 레 개시		해리그 Appad for Peace대회참가(11-15) 5.24세계여성날	후원회원의 발	평화행위의 활동	수요일
6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군속내드회 구성 발표	여성대중을 위한 평화 교육 개시	국제인민사원 활동 22개월간	순회강연	연구소서 발행	소식지 발행(2) 수요일
7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대중 평화교육 평화기원(2)	화해와 전쟁에 관한 공동독서			수요일
8	한국정부의 통일외교 군사부분 정책평가 발표	여성평화운동 학습강의 개시					수요일
9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간사단 활동 대안지표제거 행사	전문소식지 발행(2)	순회강연		소식지 발행(2) 수요일
10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간사단 활동 2000년여성평화운동 공정회	여성소식지 발행(2)			수요일
11	제4차 정책회의	여성평화운동 학습강 의 개시	여성간사단 활동	국제활동기초강연회	순회강연	여성평화연구소지령	수요일
12					화평의 날 준비 평화사망자명단		수요일
1					준비 간담회 예정		2000년 4차 총회 소식지 발행(4)

***** 상단에 따라 시기와 내용은 변경가능합니다.

1998년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라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서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체제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재민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의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공동대표 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②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④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이 중, 수석대표는 재관업무를 총괄하고 총회및 이사회의 의장을 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석대표가 소집한다.

1.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총회 구성인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수석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체(법인)의 해산 및 장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수석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수석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이사회는 수석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수석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수석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피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⑤감사는 필요한 경우 수석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잔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관입조치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①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감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재감사) 감사는 회재감사를 연 2회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명을 건당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2조(구성 등) ①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인준을 받는다.

제8장 보칙

제33조(경관제정 및 개정) ①경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②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③합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수석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익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개정

1998. 2.10 1차 개정

1999년 정관개정안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가입)

원안 ①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 ①삭제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원안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공동대표 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4. 감사 2인

개정안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공동대표 중 1인을 수석대표로 둔다.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4. 감사 2인
5.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에 편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직무)

원안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이 중, 수석대표는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이중 수석대표는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대표 읍고시에는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소집)

원안

개정안 주가 (2)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제정

제25조(재산의 관리)

원안

①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처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

①기본재산을 얻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제정

원안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하도록 한다.

개정안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2조(구성 등)

원안

①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①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단,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국장,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2. 기능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3.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운영규정 개정안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서기,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운영으로** 구성하며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임기 : 서기,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치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1. 구성 :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역간명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증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 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글 모 음

1.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2. 군축운동의 동향과 국제평화조직, 외국 여성평화조직
3. 방위비삭감운동을 중심으로 본 국내 여성평화군축운동
4.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 300인 선언문
5. 한반도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김 윤 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남북여성교류'라는 말은 이미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을 넘기면서 강력해졌던 다양한 여성운동들이 제시해온 바 '평등, 정의, 평화'의 내용을 이 개념이 담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여성교류'란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여성들이 반세기 넘어 적대시하고 있는 민족의 평화와 화해를 성취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평등한 새 민족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천이라고 경의를 내려도 된다.

그동안 남북 여성들은 여성교류를 성사시켜 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항상 정치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망과 과제를 논하기 전에 지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측 김정일정권에게는 네가지의 과제가 있는것 같다.

첫째는 미원의 권력승계에 대한 국내 정치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김정일은 당서기와 국방위원장의 지위는 가지고 있으나 전국 50주년인 1998년 9월 제10회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주석의 자리에 취임하지 못했다.

둘째는 민민에게 식량배급을 할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고 최저생활 수준을 확립 유지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식량부족의 해소라는 단기적인 문제 이상으로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이나 외부경제환경의 전환과 자충한 군사부담의 경감이라는 장기적 과제의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세째는 외교정책의 전환으로 산업기술 선진국으로부터의 고립을 파하고 새로운 국제정치환경에 적응하여 자본주의국가들 안에서 우호국을 발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네째는 군사 안전보장에 관한 과제이다. 미국과의 합의로 북측은 핵개발과 포환으로 경수로 발전소의 재고를 맡게 되었으나 핵개발의 원래 목적이었던 군사적 방위력 향상이라는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방위교섭에서 진전적인 해결을 보아야 한다.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대북정책 3개 원칙을 들었는데, 1)한국은 북측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 2)한국은 북측을 원공화든지 흡수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3)합의하기 쉬운 분야부터 남북협력에 시작한다, 이상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991년 12월에 체결했던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에 대한 지지도 세상 표명했다. 그러면서 4자회담, 6

자희담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한국이 동맹국의 간섭 없이 남북이 직접 대화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선출은 남측의 북측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지도 않으며, 민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안했고 남북이 어떠한 형식이든 교류 협력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북측이 남측의 동맹국과의 협력 교류를 진행하려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워서 화합과 협력과 교류를 시사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것 역시 흡수통일적 언어라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안보문제가 남북화해의 장애요인이 되어있다. 아직도 실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민족통일문제 앞에는 많은 장애가 놓여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북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더 더욱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여성교류의 성사가 절실의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교류는 첫째 여성들의 삶의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를 넓힘으로써 화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여성들의 평화철학이 확산되어 정책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여성을 위한 평등한 제도,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수립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됨으로써 통일독일 여성들의 어려운 실상을 보아왔다.

이렇게 민족의 참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걸어온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발제자는 우선 그동안의 여성교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본 후, 앞으로의 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해 보겠다.

2. 과거 남북여성교류의 현황

남북한 여성교류의 출발은 7.7선언이후 남북교류 및 협력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8년 이후 학생, 학자, 제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언론기관, 정당 등 각계 각층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 제의가 이루어졌고 주로 여성단체나 여성공로단체가 중심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제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여성들이 통일원에 복한 주민 접촉신청을 낸 건수는 45건인데 그 중 성사된 건수는 13건이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함) 4건, 일본군위안부 관련 국제회의 2건, 관소리 연주회 1건, One Korea Festival 합창단 참가 2건, 제4차 베이징 여성대회 1건, 조총련과 여당에 학술교류 제의 1건, 머글리대학의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 1건, 등이 성사되었던 교류이다. 통일원 발행 남북교류 현황에 따르면 1989년 6월부터 1998년 1월까지의 접촉 승인 건수 중 261건이 성사되었는데 이 중 13건만이 여성교류라는 점은 아직도 여성교류가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동안의 남북여성교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리일자	신청자(단체)	목 적	승인및 심사
90.10.29	김경오(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제27회 전국 여성대회 참가요청 및 남북한 여성단체교류 제의	승인, 불성사
91.1.15	박금순(한국부인회 회장)	남북독속음식경진대회	승인, 불성사
91.5.23	이우정(한국여성단체연합)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도쿄 토론회	승인, 성사
91.5.23	오경순(대한미용사회 회장)	아세아 미용경연대회	승인, 불성사
91.8.14	김경오(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국여성대회 참여 촉구 및 남한여성 북한 초청 제의	승인, 불성사
91.8.27	이우정(한국여성단체연합)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토론회	승인, 성사
91.8.21	최경자(국제패션디자인 이사장)	남북 실생활 의류전시회 개최	승인, 불성사
91.8.23	오부자(보라꽃꽃이회 회장)	남북 꽃꽃이 교류전 제의	승인, 불성사
91.10.25	윤영애(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 3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창립25주년 기념행사에 불수교회 설가대 초청	승인, 불성사
92.5.12	이계정(여성신문사 사장)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 전시 제의	승인, 불성사
92.6.14	김숙희(YWCA연합회장기부대행)	YWCA 70주년 행사에 북한 기독교여성 초청	승인, 불성사
92.9.2	김영자(성모수녀회 총무위원장)외 1인	북한 광충성당에서의 미사용헌 및 수녀 과전문제 협의	승인, 불성사
92.6.18	박금순(한국부인회영예회장)	남북독속음식 경진대회 개최제의	승인, 불성사
92.8.31	오부자(꽃꽃이학회회장)	남북한여성꽃꽃이 교류제의	승인, 불성사
92.8.6	이효재(정대협공동대표)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북한초청	승인, 불성사
93.11.2	이효재(정대협공동대표)	일본의 전후처리 토론회 참가	승인, 성사
93.4.27	이우정 외 11명	도쿄 여성토론회 참석	승인, 성사
93.7.28	홍미화(디자이너)	한국 패션 문화를 북한에 소개	승인, 불성사
93.11.2	이우정 외 11명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협의	승인, 성사
93.11.2	윤정옥 외 16명	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	승인, 성사
94.5.25	최만자(YWCA연합회 실행위원)	미래세계와 여성문제를 위한 모임 참석	승인, 불성사
94.8.26	이종경(YWCA연합회 사무총장)	미래세계와 여성문제를 위한 모임	승인, 불성사
95.1.14	윤정옥(정대협공동대표)	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승인, 불성사
95.2.18	이경자(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조종헌 어머니합창단 초청	승인, 불성사
95.1.19	윤정옥(정대협)	3차 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승인, 성사
95.3.2	원용연(자영업자)	북한여성과 결혼 추진	불허
95.3.31	신준영(월간 딸겨 기자)	북한의 여성생활 실태 취재협의	불허
95.5.23	안숙생(국립장곡단원) 등 2명	관소리밤 연주회 출연	승인, 성사

95.6.23	윤문자(통일회년여성교회협의회 사무총장)	북한교회 여성초청 협의	승인, 불성사
95.7.1	강철원(경제협력연구위원) 외 4명	종교위안부 관련 국제토론회 참석	승인, 성사
95.7.11	우소영(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총원장) 외 6명	장충성당 수녀 과전 협의	승인, 불성사
95.5.23	오순정(이대 통찰문인회 회장)	노천명사비 북한 건립협의	승인, 불성사
95.9.1	함병철(외부부 국제협력국장의 14명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승인, 성사
95.3.2	김준옥(거레하나합창단 단장) 53명	11회 One Korea Festival참석	승인, 성사
96.3.16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회장)외2명	조총련 여명과 학술교류협의	승인, 성사
96.4.8	강교자(YWCA연합회 사무총장) 외 49명	세계평화와 여성연대모임	승인, 불성사
96.4.8	지은희(여성교육원 원장)외 4명	버클리대 한반도 평화통일심포지엄 참석	승인, 성사
96.7.4	우소영(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총원장) 외 6명	장충성당 수녀 과전 협의	승인, 불성사
96.7.18	손봉숙(한국여성 NGO위원회 공동대표)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북한 초청	승인, 불성사
96.8.2	김준옥(거레하나합창단장)	12회 One Korea Festival 참석	승인, 성사
97.4.29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외 3명	국제여성평화와 심포지엄 초청장 발송	승인, 불성사

출처 : 김원홍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997년 11월 정치학회 7-9쪽.

성사된 남북여성교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13건의 성사된 교류 중에서 토론회 4건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회의 2건만이 남북여성들이 함께 하나의 주제를 내용으로 행사를 가진 교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사된 예술제는 주로 민족적 예술의 경우였음을 알 수 있고 제3국과 함께 하는 국제포럼일 때 성사의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측이 선호하는 교류의 대상은 남측의 재야여성들이었음이 나타난다. 4회에 걸쳐 성사되었던 ‘토론회’는 바로 남측의 재야여성운동과의 만남이었다. 그러므로 이 토론회를 살펴봄으로써 성과와 한계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성과와 한계

1991년 11월 25일 - 30일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2차 토론회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녀 학문계와 민간인들이 분단선을 넘어서 교류를 시작했던 역사적 모임이었

다. 이 모임을 성사시켰던 것은 1991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에서 모였던 제1차 토론회였다. 여기서 남측의 이우정 대표가 다음에는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의 여연구 대표가 이것을 받아 그 다음은 평양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남측의 재야운동의 열혈인 이우정 대표와 북측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인 여연구 대표라는 이 대조는 그대로 남북여성교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도쿄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었다. 이 주제 하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남과 북의 여성들은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일본여성들은 “우리를 일본은 조선 여성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종군위안부문제, 친황제와 조선지배, 재한피폭자문제, 재일의 권리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생각을 나누었다. 이 모임은 첫 모임이어서 서로의 생각을 피력하는 장으로 많은 주제의 문제점들을 가득이 쏟아부은 토론회 운영이었다.

제2차 서울토론회에서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평화와 여성”, 세 부문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남측은 유교적 가부장적 성차별문제를 제기했는데 북측은 여성해방이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측이 군사문화를 남성문화라고 규정짓는 것까지도 비판했다.

통일문제에서는 북측이 민족을 우위에 두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고 민족은 영원히나 동결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군철수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만들어 1996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반대로 민족의 이질화를 내걸며 교류 협력 개방을 주장했고 한민족공동체방안을 주장했는데 이 토론자는 남측 정부의 압력으로 실행위원회가 받아들였던 토론자였다.

평화문제에서는 북측이 미군철수, 틴스퍼트 훈련의 무당성, 군축을 주장했고 남측은 여성운동이 해왔던 군축운동이나 평화운동을 설명, 동북아의 비핵지대화, 일본의 군국주의 대두 비판을 주장했다. 통일이나 평화문제는 사실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현애한 대결이 예상되는 주제였으나 병행되는 서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던 토론회였다. 원형 살타래는 천천히 풀어야 풀리는 것이다.

제3차 평양토론회의 주제는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과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 권후보상문제”, 그리고 “평화강조와 여성의 역할”이었다. 북측은 민족대단결이란 ‘사상과 이념보다 전 민족적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사상과 이념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나가 지배피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 7천만 민족이 통일의 주체가 되자고 주장했다.

민족은 사상이나 이념 이전의 존재이고, 그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반드시 민족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합의서가 바로 민족대단결을 의미하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했다. 3차에 걸친 우리 토론회도 여성들이 민족대단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남북여성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여성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남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북과 남, 해외여성의 협의기구로서 가설 [민족통일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남측대표단 편수가 정부측 후원자였던 김,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제1차토론회부터 3차까지 참석하며 때로만 북측 실

행위원들의 실행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런 점이 남북교류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평양 토론회에서 남북이 공동주제로 잡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합의했으며 토론회를 정례화하여 통일일 그날까지 도쿄-서울-평양을 돌며 진행할 것을 결의했던 것은 큰 성과였다.

제4차 도쿄토론회는 그래서 주제를 “일본의 식민지자배·전쟁범죄와 진후보상-중군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였다. 그리고 역시 “아시아의 평화, 조선통일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제4차 모임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되었던 남북여성토론회가 다시 일본에서 개최되었다하여 1,000명 가량의 여성들이 열렬히 참가한 모임이었다. 이 남북여성교류의 성공을 일본측이나 남측은 기뻐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제4차 토론회 때부터 차츰 북측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우리 여성교류의 현재와 인식의 차이가 차츰 심화되어가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으로 우리는 많은 토론과 사담을 나누었다. 우리를 양측이 속한 체제가 우리에게 주고있는 압박, 발언의 한계, 성과를물음 이루어야 하는 압박감, 같은 주제의 반북에서 오는 지루함, 불투명한 남북의 정치적 상황 등등. 우리들은 다음 서울토론회의 주제로 함께 정하지 못한채 서로가 자기나름의 고민들을 안고 일본에서 헤어졌다.

1993년 10월 11일 남측 실행위원회는 다시금 제5차 서울토론회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여성”을 주제로 북측을 초청했으나 경색화된 남북의 정치상황으로 결국 서울토론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2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남북여성의 만남은 1993년 10월 21일 - 23일 도쿄의 제2차 ‘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의 시에 북측대표가 참가한 것과, 93년 11월 7일 북측 ‘중군위안부 및 대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중대위)가 주최한 “일본의 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에 남측 윤정옥, 이호재 대표가 참석한 만남이었다. 이호재, 윤정옥 대표는 바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의 공동대표였으니 이 만남도 ‘위안부’문제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밀해나가자고 약속했던 평양토론회의 결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3일 북측의 ‘중군위안부 및 대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중대위) 박명옥 부위원장 명의로 남측 정대협에 “중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존엄”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남북일 3자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왔다 (북에서는 ‘중군위안부’라고 하고 남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부르고 있다). 정대협은 대체로 북측의 시기선택이나 기타 제안들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준비하여 드디어 1998년 10월 8일 - 12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을 성사시켰는데 이것은 남북여성교류의 하나의 큰 진전이었다.

이 3자회담에는 북측에서 박명옥 중대위 부위원장, 리청일 아시아여성들과 반대하는 조선녀성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지금나 ‘위안부’ 할머니 등 8명이 참석했고, 남측에서는 정대협의 윤정옥, 김윤옥 공동대표와 지은희 기획위원장, 그리고 이우경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수석대표 등 6명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반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대표(참의원 의원), 니시노 루미코 VAWW-Net Japan 부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북측의 제의대로 주로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말재와 토론이 있은 후 일본정부에 보내는 항의문을 공동제책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썼다. 민족자멸과 여성자멸의 극치를 제도화했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공동의 주제로 해서인지 의견의 차이는 없었고 토론회

사에 만났던 구면인 점도 있어서 회합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참고로, 일본정부에게 항의한 4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시모노세기 판결을 인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하여 '국민기금'으로 해결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배상을 위한 입법을 하라.

3)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올바르게 기술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한 역사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

4)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권고, 제이 랙두길 권고를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그밖에도 정대협과 종대위는 2000년 12월에 가결 '국제전범여성법정'에 함께 참여할 것과 앞으로 '위안부'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연대를 위해 일본을 통하여 서로 연락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것은 민족의 자존심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합심한다는 의미에서 남북여성교류의 큰 성과였다.

그동안의 남북여성교류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정부 일색이었던 대북 창구를 민간 여성들이 뒀다는 점이다. 민족의 통일에는 정부와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과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의 여성들이 관문점을 넘어서 평양으로 다녀왔고 도쿄, 서울을 돌면서 토론회를 성사시켰던 것은 큰 성과였다.

둘째는 여성들의 주제를 남북여성들이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다. 카부장제, 평화,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여성의 관점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함께 다루었고 토론회를 이끌어냈던 것은 큰 성과를 할 수 있다.

셋째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져왔는지를 확인한 점이다.

그리고 단남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길었던 것은 그대로 통일과정의 학습모델이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다.

1) 남북한 양 정부의 대결구조에 따른 제한된 교류라는 한계이다. 토론회의 성사시기의 양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았고 순수한 민간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리고 창구가 다원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수 여성들만의 토론회를 성사시키기 힘들었다. 예를 들면 북측 여성들도 당의 남성들에게 가서 토론한 후에야 우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듯 했고, 우리도 정부측 요청으로 우리의 대표단 구성을 간섭받았다. 그리고 공통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의 접촉승인, 신변보호라는 이유로 다수의 정보부 요원이 회의 장소에 출입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2) 남측은 재야 민간여성운동가들이고 북측은 정부측 여성들이라는 한계이다. 북측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없다. 그리고 남측은 민간단체는 있으나 국가보안법이라는 틀 속에 북측과의 단남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현재로서는 인정하고 인내할 과제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북측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보다 그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측여성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위해 대응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민간운동단체들의 자세와 입장을 정부는 단순하게 북한체제의 잘못으로 규

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3) 인식 차이의 한계이다. 4회의 토론회에서 경합한 것으로 역시 반세기 가 넘는 분단의 결과,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도 남측발표는 북측과 남측의 민족은 이질화되었다고 했고 북측은 '민족은 명민하니 이질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측은 북측 통포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북측은 자존심이 상하여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강변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가부장제에 비판에 대한 남측의 여성들의 입장이 달랐고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서로의 시각 차이는 상이한 세계에서 비롯되는 오랜 분단의 결과이다. 또한 그동안 북측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나 연구가 미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북측 사회나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남북여성들의 상호이해충진을 위해서는 북측여성성에 대한 연구와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4. 남북 여성교류의 활성화 방안

1) 남북여성교류의 방향

현재 남북교류의 경향을 보면 대개 경제분야의 교류가 많은 상사비율을 보이고 있다. 1989-1998년 통계를 보면 성사건 총 361건 중 경제분야가 104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남측은 교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반면 북측은 개방의 정도와 경제적 이득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방을 하고있고 그 개방의 정도와 대상은 북측의 필요성에 의한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교류가 경제문제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보니 남측의 대북진출의 경향은 다소 경쟁적인 성격을 띠며 이는 일정한 경제적 뒷거래까지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북측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교류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북측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실리적 추구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북교류의 전반적 양상이 경제적 영역에만 규정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다. 특히 정부가 교류와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김작으로 모든 교류를 경제분야와 연계시키는 것은 단기간교류의 질적 저하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 이는 북측의 현실적 요구에 따른 경제교류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교류협력이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근래 '통일'과 구분되는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남북관계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통일'은 정치현상의 표현이지만 '통합'은 국민적 일체감의 형성, 사회경제제도의 단일화, 문화적 동질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통합노력이 통일전후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연구의 공통분모는 현재 남북의 공존체제 마면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하버마스도 '제3의 길'의 저자인 영국의 윈서니 기는스도 역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중간단계를 두고 각각 자율성을 유지한 채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제3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충고하면서 정치경제의 통일보다는 사회적 통합과

공존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도 힘의 논리가 작용될 때는 역시 침범이나 흡수 성격이 될 것으로 여성교류의 방향은 통합과정에서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배제하고 상호주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는, 윤리적으로 선한 교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로지 목표를 평화증진에 두고 무력이나 폭력을 감소해야 하며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해야는데 늘 때, 이러한 윤리적으로 선한 여성교류가 남북교류의 주류가 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화해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정미로운 사회통합으로 이르지 된다.

2) 여성교류의 과제

그러므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여성교류의 평화세력을 육성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회복과 화해의 역할을 북측여성들을 인정하며 이해하며 선택하면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김대중정부의 개방적 정책과 김정일 정부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여성교류의 미학을 가진 평화세력은 자기들이 속한 체제를 넘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소위 '제3의 길'을 걷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교류의 과제를 그동안의 제안들을 포함하면서 몇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겠다.

(1) 여성교류를 실현해 갈 연역자본 축전의 과제 :

평화증진을 위한 여성교류의 미학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해 낼 과제가 중요하다.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일을 위해 정보수집과 기록,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실무력이 요청되며 아울러 북측여성들과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 여성평화운동가의 양성으로 평화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평화전문가들이 통일정책이나 교류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단체간 네트워크의 과제 :

남북여성교류는 파트너인 북측의 의지와 자세, 그리고 정치적 상황 등이 교류성사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우선 정치적 이해하는 거리를 두면서 북측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남북 여성단체들의 성숙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교류의 내용과 방식을 함께 논의하며 여성들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거나가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면서 정부의 통제나 아닌, 여성민간단체간의 자율적 조절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면서 여성교류의 미학을 서로 익히고 내면화하면서, 평화를 증진시킬 남북여성교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증진해 낼 과제 :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정책에 여성교류정책이 포함되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져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과제가 있다. 거의 완벽하게 작성되었

다는 청송을 받고있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여성부문이 누락되어 있음은 얼마나 정부가 여성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편이 여성이며 성사되었던 여성교류의 성과를 돌아볼 때, 중요한 여성외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는 것이다. 예로, 합의서 제22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다. 이에 여성문제를 논의하고 여성특위정책을 마련하는 기구설치와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앞으로 공동위원회의내 구성하든지 또는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든지 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의 여성교류를 위한 재정지원이나 연구지원을 끌어낼 과제가 있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가 이러한 과제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적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여론조성의 과제 :

평화문제는 남북 간의 민족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여러가지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국제여성단체들의 지원이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5. 마치면서 비전을 이야기해 본다.....

위의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면서 우리는 남북여성으로 구성된 평화세력조직이 가능하게 많을까 비전도 가져볼까하다. 가칭을 붙여본다면 "남북여성 평화협의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어느 체제에도 속속되지않고 명함받지않는 남북여성들의 주체적 조직으로, 마치 월남전쟁시기에 미국여성들과 월남여성들이 평화협의회를 조직하여 적대와 폭력을 평화로 바꾸는데 활약했듯이, 북아일랜드여성들과 영국여성들이 평화여성회를 만들어서 일했듯이, 그렇게 남북의 여성들이 역할해낼 수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 조직의 프로그램들은 남북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든지, 아산가족의 상봉과 그 이후문제라든지, 나아가서는 '민족과 여성', '국가와 여성'에 대한 중층적 인식문제라든지를 함께 풀어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조직은 느슨하게 해서 자주 만나며 서로 사귀고 사담을 나누면서 서서히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어드리며 하나의 공동체를, 남도 북도 아닌 제3의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의 모델을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남북여성교류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글은 1999년 10월 20일 '남북여성교류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군축운동의 동향과 국제평화조직, 외국 여성평화조직

정 경 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

I. 군축운동의 동향과 발전

1. 군축관련 조약

1) 핵무기

- 1960년부터 핵무기통제협정에 대한 활동이 증가
- 1964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the Partial Test Ban Treaty)
- 1967 라틴아메리카에서 트랄테로코 조약(1967)과 함께 비핵지대가 생겨나기 시작
- 1975 핵확산금지조약(the Non-Proliferation Treaty)
- 1976 미소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 1972, 1979 전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 II)
- 1985 중거리핵전력삭감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 1982/1983, 1990 전략무기삭감교섭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Treaty)

2) 재래식무기

1973-89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토론은 유럽안보조직(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으로 전환되고 재래식무기협정과 유럽재래식공군력협정 채택에 기여, 현재 무기이전에 관해 UN통제제가 발달하고 UN 사무국이 조정.

2. 우리의 현재위치

냉전 이후 수많은 협정이 채택 CTBT(1996), 대인지뢰금지오타와협정(1997) 등 이런 협정은 동서 사이에 행명으로 가능, CTBT는 냉전의 종언으로만 가능한 조약

군축 접근법에서 변화가 있는데 1) 오타와대인지뢰협정처럼 긍정적인 것 2) 탄도탄요격미사일조약처럼 더욱 부정적인 것.

3. 떠오르는 경향

유엔 안보리의 무기과괴와 무기제조시설 파괴에 대한 결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IAEA와 UNSCOM in Iraq의 조사가 조약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침.

냉전 후 군산복합체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가 주요. 오늘날 각국은 군축협정의 집행에 필수적인 자국의 부분적인 주권양보 보다 산업 및 군사시설 보호와 그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많은 국가들은 건강, 안전, 환경 및 재정기준, 관습을 구실로 전쟁관련 산업 시찰을 막고 있다.

4. 이런 경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여전히 국제사회는 제거해야 할 많은 무기가 있다.

대량학살무기-핵, 생물, 화학무기/지뢰/소무기의 사용.

군축은 국가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안보를 증가. 군사비를 교육과 음식, 사회안보로 전용해야 한다.

* 고려해야 할 점

- 군국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네바군축회의는 기능을 하는가/ 그것의 미래는
- 대인지뢰금지틀 이관 오타와 프로세스는 다른 유형의 무기에도 적용가능한가/ 오타와 프로세스로부터 NGO는 군축관련 협상과 집행과 관련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 다른 다자적 접근을 개발할 수 있는가
- 무기통제이슈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 OSCE와 같은 유럽조직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가능한가/ 지구적인 접근과 지역적인 접근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가

*무기의 범주

다양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무기-대인지뢰, 소무기, 소폭탄
사용보다는 위험용 무기-핵, 화학, 생물무기
대규모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대규모 재래식무기, 탱크, 공군기

*군축을 위해 우선성을 설정, 인간의 삶과 환경, 경제, 인류의 복지와 발전을 고려하고 총체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정부, 정부간 조직, 비정부조직, 학자, 건강전문가, 환경론자, 전략가, 변호사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군축과 전체의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온건파나 대과도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II. 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 - 정부간 군축논의

-UN차원에서 CD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포럼으로 협상을 통해 국가의 안보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자군축과정을 수행.

-78년 비동맹국들의 주도로 개최된 제1차 UN군축특별총회에서 기존의 군축위원회회를 해체하고 5개 핵보유국, 35개의 비동맹국과 중립국으로 구성되고 이후 GROUP-2이 참가하여 6대국으로 구성
-핵무기국, 핵소유를 목적에 둔 국가, 주요무기생산국과 소비국-서방국가, 동맹국가, G-21

-관심사: 핵군축, 우주에서 무기경쟁방지, 핵무기시험의 보편적인 중지, 화학무기 및 타 대량살상무기의 금지, 재래식무기 제한과 삭감, 군비삭감, 군축과 국제안보 등

-CD의 틀내서 주요한 국제적인 합의는 대기, 우주, 물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 CD의 과거

-냉전상황에서 조약을 협상을 통해 이루려는데 큰 역할을 함

-1980년대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초결, 1992합의, 1997년 효력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협상 주도,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2. CD의 현재 : 1997년 전환점-휴지기

* 핵군축에 대한 절친적인 접근법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 대립

가)절친적인 접근법 반대

1) G-21중 상당국가가 절친적인 접근법에 대해 우려

-국제사회가 핵국가들 스스로 양자 협상이나 다자협상으로 핵무기 감소를 위임하는 것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CD에서 다자적 노력이 보충되어 관련 국가가 핵무기 생산이나 지장이 어렵게하고 비확산을 촉진시키는 게 필요

-핵국가들 사이에 진보적이고 체제적인 핵무기 제거를 위한 조치가 필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주요한 다자핵군축협상은 핵무기연료물질삭감협정(Fissile Material Cut off Convention)에 관한 것.

-냉전후 다수 국가들은 핵국의 핵무기 저장수준과 핵무기 잠재적 사용을 기반으로 한 군사 목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D내 핵군축 특별위원회 설치와 2000년까지 핵무기 전세계 제거를 위한 행동계획을 세출

2) CD외부-핵무기완전제거 추구

예) Canberra Commission(1996성립), 미국 퇴역군사지도자, 군축연구소

CD가 핵무기 완전제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요구

나)절친적인 접근법 지지

서구국가들은 위 주장을 비현실적이며 비실제적인 것이라며 저장핵무기 삭감에 대한 다자

적 접근을 반대하고 양자협상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Fissile Material Cut off Convention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

•대인지회문제

오타와 프로세스 대인지회 국제조약에 초점

CD는 대인지회특별위원회 설치를 논의할 수 있는 특별조정자 임명을 둘러싸고 논쟁

-> CD의 역할에 의문제기

3. CD의 미래

-1998년 제1세션에서 핵군축에 대한 중도적 입장 제안

-재래식 무기 논의 필요(대인지회/ 소형무기Small arms)

-CD는 전체적으로 냉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록구조가 흔들리면서 서구그룹과 G-21그룹이 핵군축을 둘러싸고 분열

-CD의 활동구조-모든 결정 합의구조, 특별조정자 임명문제, 61개 회원국만의 폐쇄구조

4. NGO와 CD

CD내 NGO 참여구조가 없다.

NGO가 CD활성화에 기여

여성평화조직의 CD에 대한 요구

2000년 NPT Review Conference를 위한 예비위원회 활동기대, 핵군축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우주에서 무기경쟁 금지 협상 촉구, 대인지회 관심

III. 국제평화조직

1.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1)설립과정 : 1915년 4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여성들이 전쟁종결과 미래 전쟁방지를 위해 헤이그에서 국제대회를 소집, 이 대회 조직자는 국제장정권 운동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로 평등권과 평화 사이에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1000명의 여성들은 전쟁종지와 영구적인 평화를 세울 것을 약속하며 영구평화를 위한 여성국제위원회 설립을 결의하고 이는 4년후 WILPF로 전환

2)목표 : 국제장정의 정치적 해결, 군축, 모든 사회활동에 동등한 참여 증진, 국가내에, 국가사이에 경제정의 실현, 인종주의와 모든 차별과 착취제거, 기본적인 인권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발전권 존중

3)UN과 관계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ESCO, UNCTAD의 자문기구, UNICEF, ILO, FAO에 특별한 관계, UN NGO위원회(CONGO)와 UN에 자문지위를 가진 NGO위원회에 참여

4)활동 : 국제적인, 국가적인, 지방수준에서 기능, 42개국의 지부

5)핵군축활동(Women Insist on Nuclear Disarmament) : 핵군축을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으로 활동하는 WILPF 여성들의 네트워크 49개국에서 진행 Nuclear Weapons Convention요구, NPT 변화요구(현재 NPT는 핵의 현상유지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NPT Review Conference를 위한 예비위원회에서 NGO의 참가 보장 요구.

2. 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antipersonnel landmines)

97년 12월 오타와에서 대인지뢰 금지 국제협정이 정식 서명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 ICBL은 지난 91년 11월 미국의 베트남 참전용사회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레디코 인터내셔널」 두 단체가 모태가 된 탄생. 그외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평화유지활동을 담당했던 로이드 텍스 워시 캐나다 외무장관과 지뢰추방 노력을 해온 페드릭 리시 미국 상원의원의 권의 권록적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단체로 성장했다. ICBL은 독립기구라기보다는 전세계 55개국가의 비정부기구(NGO)로 구성된 일종의 네트워크로 다이애나 바의 알골라 및 보스니아 방문을 주선해 대인지뢰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ICBL에서 활동중인 단체는 의료 군축 종교 환경 여성 및 어린이 단체 등 1,000여개이고, '현재 Liz Bernstein이 Coordinator이며 Coordination Team이 집행기관이다. 전 Coordinator인 조디 윌리엄스는 현재 ICBL의 순회대사로 ICBL과 함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ICBL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ICBL의 가입단체이다.

조디 윌리엄스와 ICBL은 지난 6년간 대인지뢰의 완전한 추방을 목표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왔다. 그 결과 95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정 통상병기 사용금지제한조약(지뢰금지 조약)' 제정회의가 열리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일장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스마트 지뢰'만을 사용토록 규정한 지뢰금지조약 약 개정(96년5월10일), 미국의 대인지뢰 포기 선언(96.6.16) 등을 속속 이끌어냈다. 1999년 8월 40개국이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을 비준해 1999년 3월에 발효된 예정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ICBL은 50여개국으로부터 지뢰수출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30개국이 지뢰금지를 선언하는 등 힘을 키워나갔다. 지난달 오슬로에서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협약안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올리기도 했다.

ICBL은 전혀없던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대인지뢰금지의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ICBL은 노벨평화상 수상이 지뢰퇴치 운동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70개국에서 1억1,000만개나 묻혀 있는 지뢰로 22분마다 1명꼴, 연간 2만6,000명이 살상되는 현실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의 80%는 민간이다.

조디 윌리엄스의 활동 방식이다. 93년에 창설, 전세계 55개 지부에 1천개가 넘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엄청난 단체의 본부는 버몬트주의 윌리엄스 집이다. 사무실도, 휴급 직원도 한 명없는 단체가 바로 ICBL이다. 그래도 활약은 눈부시게만 하다. 지난 9월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전세계 1백여개국 대표들이 참석, 「대인 지뢰 금지협약」 초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현재 80개국이 조합에 서명한상태이며, 오는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윌리엄스는 운동 방법을 묻는 질문에 [전자우편(E-Mail)]이라고 대답했다. 윌리엄스와 ICBL이 본격 활동을 시작할 지난 91년 무렵,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이를 한껏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붙은 별명도 [말장전 시대 국제 시민 운동의 새로운 진형],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인 제시카 매튜는 윌리엄스와 ICBL을 가리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국제 회고 규칙을 파괴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활동은 냉전 이후 시대에 기념비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IV. 각국의 여성평화운동

1. 캄보디아 : Kimer Women's Voice Against Landmines

2. 이스라엘

Bat Shalom : 이스라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센터

민주적이고 다원적 사회 건설 추구, 여성외식 향상과 평화문화와 사회정의 창조. 이 조직의 형성과 함께 팔레스타인여성센터인 Jerusalem Center for Women이 아랍지배의 불예무실현에서 형성. Bat Shalom의 일부 활동은 Jerusalem Center for Women과 함께 함. 양 조직의 조정 위원회를 Jerusalem Link라고 한다. 전략과 공동작업을 위한 토론 진행, 이 조직은 사회소외계층을 여성, 예티오피아로부터 이민온 여성,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여성을 상대로 활동. 매우 토론, 팔레스타인여성정치참여 역량 촉구.

the Peace Bus 프로젝트- 수백명의 유대계 및 아랍 이스라엘 여성들이 참여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도시로 양민족의 평화와 상호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버스여행 진행.

2) Women Against Fundamentalism : 유대계와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이 같이 종교적 편견주의적 근본주의의 위험과 그 잔학성에 대해 여성의식화 활동

3. 영국

1) 평화캠프가 유명. 1980년대 Greenham Common Peace Camp는 전쟁과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유명.

2) 알더머스톤과 버그필드 여성 평화캠프(Aldermaston & Burghfield Women's Peace Camps) : 핵무기 생산과 연구 중지화 환경오염 제거

3) 셀라필드 여성 평화캠프(Sellafield Women's Peace Camp): 방사선의 유출, 핵무기를 줄로 도는, 핵폐기물, 핵산업 관련 비밀, 선전, 은폐 반대

4) Menwith Hill Women's Peace Camp

4. 뉴질랜드

1) Women's Peace Flight to Tahiti-뉴질랜드여성과 마이디 여성이 함께 만든 조직으로 태

평화 여성, 종교, 평화 그룹의 연합체에 의해서 조직화. 프랑스의 핵심법에 적합하기 위해, 평화 핵심법과 식민주의와의 연계 인식. 타이피 독립 요구, 핵심법지역으로 항의하는 평화행진, 프랑스 대사관과 중국대사관 밖에서 매일 한번씩 항의시위

5. 구유고슬라비아(크로아티아)

1)Women in Black Against War: 1991년 10월 벨그라드에서 시작. 그때 이래로 매주 수요일 전쟁, 인종청소, 군국주의 반대하는 항의시위, 검은 옷을 입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인에게 유인물 배포. 18세부터 75세의 여성으로 선생에서 피난민으로 구성. 전쟁, 세르비아정권,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구유고슬라비아에 걸쳐 여성평화활동가를 지원.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해 진화상단을 통해 법률지원, 실제적인 지원을 함. 탈병병이나 반군국주의남성 지원.

2)Ba.B.c.(Be active, Be emancipated): 자그레비브에 있는 여성인권센터. 유엔인권선언과 CEDAW원칙과 정신에 기반해 활동. 1994년 9월에 법률지원 핫라인 개설했. 선거감시, 교육

6. 수단

1)Sudanese Women's Voice for Peace: 1994년 3월 발족. 남수단은 흑인기독교인들이 다수이며 자원이 풍부, 북수단의 비흑인 무슬림이 권력장악. 종교전으로 비화. 85년이후 백만명이상이 사망. 수단인민해방군과 대화하고 화해할 것을 촉구/ 무기유동중지/ 교육재건 추구

2)African Women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Project: UNFEM이 갈등해소와 평화를 위해 아프리카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Liberian Women's Initiative, Women for Peace 등이 참여. UN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에 종교, 부족, 계층이 갈등의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며 화해와 치유와 평화를 촉구하는 전쟁서 제출

3)The Committee of Soldiers's Mothers of Russia: 전쟁전 참가군인 엄마들의 모임

4)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CVWP)

참고자료:

Disarmament: Trends and Development (Patricia Lewis, Director of the UNIDIR)

The Work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Arne Andersen)

Statement to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The Women for Peace Working Group)

WIND Campaign and the NPT Review PrepCom, April 1998(Felicity Hill and Emikie Hafner)

International Peace Bureau,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9)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관련 자료

대인기피 금지, 현실과 지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역음(1998)

[이 글은 1999년 11월 13일,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초청 학술회의 '군축운동의 사례연구와 평가'에서 발표된 발표문입니다.]

방위비삭감운동을 중심으로 본 국내 여성평화군축운동

김 열 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

1. 평화군축을 위한 여성단체들의 연합(연대)활동

여성평화운동의 내용을 크게 시대별로 본다면, 70년대에 시작된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이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민족의 자주적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반전, 반핵운동으로 발전되고 90년대에는 주로 방위비삭감을 중심으로한 군축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교류, 정신대문제해탈활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참조 : 「여성, 평화, 생명: 이우정교회기념논문집」, 1993; 한국여성개발원, 「나이로비여성발전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성단체활동」, 1994)

1. 원폭피해자 지원활동과 반전 반핵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70년대 중반부터 원폭피해자문제를 사회문제로 여론화시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가족 생계지원을 해오면서 80년대 중반부터는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등에 힘써왔다. 이러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업은 1985년 이후 민족해방적 관점에서 반전, 반핵, 평화운동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5년 유엔여성 30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평화관련사업에 중점을 두고 민족자주화와 민족생존의 차원에서 반핵주장을 하면서 평화마당이라는 대중집회를 통하여 민족통일과 평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시켰다.

-한국여성당새연합도 1989년 반핵평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핵발전소 저지운동, 군사기지 철수운동, 핵무기 철수운동 등을 전개하여 여성들의 반핵평화운동을 확산시켰다.

2. 최루탄 추방운동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발생하는 최루탄문제에 대하여 여성들이 최루탄 추방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최루탄 추방을 위한 어머니들의 평화행진'과 최루탄 고발센터 개설, 최루탄 제작회사 조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하였다.

3.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 II.참조
4.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①결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이하 어머니 모임) : 1991년 1월, 미국과 유엔의 다국적군에 의한 대이라크 전쟁이 개시되고 미국은 우방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구하였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어머니 모임을 결성하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식들을 전쟁에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편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알렸다.

②페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이하 여성모임) : 1994년 2월, 북한의 핵사찰 불응 등으로 한반도 평화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정부는 대맞추어 미국의 페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였다. 이에 9개의 여성단체들은 여성모임을 즉각 결성하여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시위 등을 통하여 미사일배치의 정치적 의도와 미 군수산업의 현실을 알릴으로써 탈냉전시대의 한반도 평화정착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③평화를 만드는 여성연대 : 1994년 6월, 여성단체들은 위의 어머니모임과 여성모임 활동의 대학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연대'를 한시적으로 결성하고 전쟁에 대한 공포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호소하였다. 또한 평화행진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북미간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 북미수교, 탈스피리트 훈련 중지, 북한 핵사찰재개 등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II.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본 평화군축을 위한 노력들

1.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의 결성 과정

-80년대 후반과 90년대의 초는 고르바초프의 군축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결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국내 사회운동단체들의 군축논의와 군축운동이 활성화된 시기라고 보여진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인을 중심으로 군축운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평화군축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 군축운동의 과제 등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평화군축운동의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98년 11월 여성단체들은 국방부 후원으로 개최된 무기국제전사회에 즈음하여 방위비삭감 요청과 무기전시 전상구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위와 방위비삭감 요구 편지 등 군축에 대한 대중적 캠페인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2년 여성단체들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예산, 특히 여성복지비의 확대를 위한 '방위비삭감을 위한 연대모임'(1995년 당시,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자협

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결성하고, 1996년까지 국회의 방위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국방비 편성 관련자들에게 질의서, 청원서, 입서보내기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 거리홍보 등을 통하여 여론화하였다.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본회의 고유사업으로 평화군축운동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할 것을 믿고 1998년 4월에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2. 방위비삭감연대모임의 주요 활동과 의의

①주요활동

①주요 슬로건 : 방위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비를 증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라

②여성들의 주요 주장 내용

가)안보개념의 전환 : 전쟁억지론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인간안보개념의 도입, 민족공동안보 모색
나)체계적인 국방재회과 전망제시 : 남북한 전력비교의 객관적 평가, 대미의존적인 군사관계에서 비롯되는 비자주적인 국방정책

다)비효율적인 군구조 개선 : 높은 운영유지비에 대한 재고

라)과충하게 무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마)불필요한 무기수입의 재검토

사)국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장치 마련

==참조 - 정부측 답변

1)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므로 지속적인 전쟁억지력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위비 소요는 필요하다.

2)국민들의 사기 복지를 위한 방위비 증대는 필요하다.

③방식 : 토론회, 공청회, 거리홍보전 / 국방부, 재경원, 청와대, 국회의원들에게 방위비삭감연대모임과 그와 사회단체들의 명의로 청원서 또는 건의문, 공개서한 발송 및 전달, 국민들의 대동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입서보내기 / 재경원 실무책임자 면담 등

②의의

①군축문제의 공론화 조성 : 사회적 논의가 활발치 못하고 국민적 합의가 거의 있을 수 없었던 방위비문제 그동안 독점하여왔던 정부의 방위비 증액 입장과 논리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 여론화하였고, 군축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단초를 마련하였다.

②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한 운동으로서의 기반 조성 : 방위비삭감문제는 남북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하는 통일기반 조성의 선결조건이자 평화통일의 과정인 만큼 연대모임은 방위비삭감운동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 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하였다.

- ③군축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 조직 : 군축운동의 수준이 낮았던 상황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공식적인 방위비삭감운동의 연대활동을 조직하고 군축운동의 주체로 여성을 세우면서 군축운동을 여성생활, 나아가 국민생활상의 요구에 접근시켰다는 점에서 연대모임의 선도성과 주도성은 강하였다고 본다.

3. 한계 : 방위비삭감운동의 정치적 성과가 있었는가?

③방위비삭감운동의 대중적 확산의 문제

- 단시간 내에 운동적 성과를 이룰 수 없는, 사안자체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영역
- 국민들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른 인식의 한계
-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삶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은 점점 모색 부족

③방위비삭감운동의 정치적 활동의 문제

- 방위비삭감운동의 내용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정부활동과 국회활동 역량의 부족
- 사업결과와 실행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량의 미비로 사업의 추진력이 약화

③방위비삭감을 위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고려를 찾기 어려웠다.

III. 군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생각들

1. 군축운동에 대한 인식 확대

-90년대초 여성단체의 평화군축운동에 관한 글을 보면 주로 군축운동은 통일운동의 일환이거나 통일운동을 위한 한 방법이라는 성격으로 규정되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연, 평화군축운동과 여성운동, 1992)

-①군축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만큼 통일운동에 있어서 주요한 선결조건이고 핵심이지만, 통일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평화운동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1)군수산업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 2)반민주적인 가부장적 질서, 획일화된 사회문화, 이를 수호하고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와 불의한 권력구조,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생활문화 질서에 대한 저항이자 해체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이다. (적대의식, 다양한 사상과 문화 규제, 획일적인 전체주의 폭력행사, 부자유로운 의사소통구조 등의 제거) 그러므로 군축운동은 국방비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문화와 평화로운 삶의 지향성을 확산시켜나가는 데 있다.

-②군축운동의 끊임없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위한 작업,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한 가부

장력 결사의식의 해체를 위한 작업, 아울러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전망과 노력이 요청된다.

2. 군축운동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군축관련 사안은 군사관련자들의 독점적 영역이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대응적 논리개발이 요청된다. 아울러 여성들이 군축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여성들이 생각하는 군축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여성해방적 전망에서 군축운동의 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군축운동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여론화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력

-군축운동은 민간단체의 노력에 의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군축의 정당성을 여론화하고 현 정부에게 다각적인 압력행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현 정부의 군축에 대한 진보적 입장의 여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군축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직하여 그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축운동은 세계 군수산업과 그 제도적 기제에 의한 메카니즘을 잘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비판하고 제거하느냐의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여성평화군축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1999년 11월 13일, 평화군축을 위한 전문가초청 워크숍 '군축운동의 사례연구와 평가'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 300인 선언문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분단 53년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지난 91년-93년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최초로 남북여성교류의 물꼬를 텄고, 93년 이래로 군축만이 남북이 살길임을 확인하고 평화비확립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여성들은 남한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사태로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사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평화군축을 통해 남북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한다. 심각한 양국의 위기 상황에서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계속한다면 남북은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케되어 급기야는 공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를 갈망하는 우리 여성들은 평화의지를 한데 모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인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촉구한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로 200만 이상의 실업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 국민은 경제를 살리기위한 최선을 다수하고 있고 고분분담을 주저하지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비는 IMF의 긴축재정과 예산삭감 요구에 따라 축소조정된 추경예산에서도 소폭으로 삭감되어 국방비만 예외로 국가부도 위기 상황과 별도로 확정되었다. 온 나라가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국방비도 예외일 수는 없다. 98년 국방비 14조 6,275억원 가운데 11조가 운영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 비례하고 중복된 군구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내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군 내부의 구조조정은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하고, 군인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국가의 존립위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차지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2. 국방비를 삭감하여 살입대체 자금 등 사회복지혜선을 준핵력 줄 것을 요구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로인해 200만 대량실업사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제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길거리의 실직자 및 노숙자들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결식 문제등을 비롯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비를 삭감하

어 실업대책 기금 등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저소득 한계계층 여성의 생계지원과 실직자 자녀의 학비 및 급식비·교육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전체실업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비의 삭감을 통해 조성된 실업기금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무기수입 및 주한미군분담금과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부 외화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군의 외화예산은 엄청난 군수예산과 과다한 주한미군분담금을 지불해왔다. 외환위기를 심화시키는 원화가치가 두배로 하락한 현실에서 무기구매대금과 주한미군분담금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국방비 삭감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은 엄격한 무기구매 압력과 3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 비율의 분담금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방부는 미군의 주한 목적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기수입과 주한미군분담금의 전반적인 재조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국방비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그동안 무기구입과 무종구입을 둘러싼 유공사업의 비리와 의혹은 국방비의 비효율적 관리와 낭비의 일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정부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는 국민에게 설명화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정부는 국방비의 투명화를 위해 국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남북기본합의서에 약속한 군축원칙의 즉각적인 계세를 촉구한다.

남북은 이미 지난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과 군축협상을 약속했다. 따라서 군축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의 위기극복을 위한 열의로 작용해 화해와 공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결국 군축을 통해 남북은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적대와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일대기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군축이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 신뢰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임을 거듭 밝히면서 군축을 위한 정부와 국방부, 미국,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건설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5월 22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촉구하는 여성 300인 선언자

강수영, 강이수, 고성희, 고은실, 고영자, 강해린, 김경애, 김경희, 김덕자, 김동순, 구미영, 고애신, 전유희, 하우연, 성봉희, 정보영, 나선정, 윤지경, 박봉관, 차갑진, 정은화, 김경희, 안임수, 안향자, 유가효, 최경순

신연숙, 이경희, 박혜순, 이원순, 유옥순, 최성원, 김진실, 김연숙, 김연숙, 김영미, 김예숙, 김용숙, 김은경,
 김지선, 김용진, 나영숙, 김옥임, 김신아, 이정미, 김남경, 김연순, 김지희, 김현선, 김희은, 도경진, 박남희,
 김미경, 김양원, 성봉희, 박경미, 박노숙, 배원수, 권미경, 김경아, 조인영, 김주연, 고혜진, 최순옥, 문정희,
 김연숙, 황영미, 이원아, 원은경, 장석희, 봉귀숙, 윤경란, 오은숙, 류경임, 정 선, 손은희, 김용숙, 정현백,
 이현숙, 박영숙, 윤순녀, 이더경, 이문우, 윤영애, 이호재, 이재희, 김은영, 김혜경, 명진숙, 문진경, 민경자,
 박금배, 김희원, 조미리, 윤영애, 김명현, 이호순, 박기남, 박민자, 박상희, 박영미, 박영숙, 박은경, 박인혜,
 박완숙, 박혜란, 최현덕, 박성수, 박영숙, 황진희, 이문자, 하환자, 이수애, 이승원, 최정희, 민경자, 박효숙,
 방혜선, 배은경, 서옥래, 손영희, 손영주, 송정숙, 신경아, 신경배, 신현옥, 배진경, 신양자, 손영주, 황원숙,
 조현나, 서미숙, 정보영, 안수경, 김엘리, 고은광순, 정경란, 조영희, 박기정, 여해숙, 윤문자, 이재선, 성영자,
 김옥인, 김진실, 손명운, 윤혜경, 한옥자, 권태순, 김태현, 이순래, 안재근, 장도순, 신순희, 장원미, 신 선,
 현영순, 허윤자, 박경숙, 문용녀, 김영수, 김우순, 황양순, 안당남, 정영순, 이혜순, 지선덕, 최영실, 남윤인순,
 손숙, 김조숙자, 신혜숙, 오숙희, 오성숙, 여용옥, 이선희, 권미영, 여은미, 김현숙, 박성자, 김현숙, 김형남,
 김혜경, 김혜선, 김혜장, 오덕덕, 박영미, 최미혜, 김희선, 왕인순, 어주환, 김지현, 이혜경, 장정임, 장하진,
 조영숙, 오혜경, 최양순, 윤정희, 김 열, 우정애, 이강실, 이상영, 문화영, 백지순, 최영숙, 이정숙, 이혜숙,
 김부용, 이순라, 안경선, 윤정숙, 이정자, 김지연, 이정숙, 박실자, 노길림, 조영숙, 김숙임, 한천이, 윤수경,
 어우경, 이은숙, 최양자, 정영애, 고송자, 현명자, 서옥래, 박완숙, 윤금순, 김성숙, 김덕자, 조 은, 최미애,
 최영애, 현명희, 김경희, 이화자, 김순옥, 오문임, 원순분, 장명실, 조화순, 조혜경, 박은주, 김다미, 김은옥,
 사대란, 조영자, 김유숙, 이무자, 박재희, 갈원수, 최옥주, 이미자, 한기자, 김연숙, 홍정희, 현인숙, 김애자,
 정희연, 송애경, 신혜수, 구춘도, 한국영, 이문숙, 성명옥, 정은숙, 최명숙, 최양자, 정태효, 유미희,
 조순실, 최진희, 한우실, 김재경, 손덕수, 김애숙, 정명화, 이승희, 김여영, 남명희, 정숙자, 윤춘자, 홍보연,
 윤명선, 최만자, 박원선, 김보주, 신혜수, 이재경, 이영순, 지은희, 최주영, 원명숙,

한반도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민족의 분단과 반목을 가슴 아파하고 남북의 이해와 통일을 갈망해 온 우리는 남북당국에 평화군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분단과 동족상잔이라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또 다시 큰 서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은 IMF한국으로 온 나라가 큰 물살을 앞고 있고, 북쪽 또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든 직장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실업자 산세로 전락하고 있고, 자군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은 하루 생활이 불안하고 기업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평화군축의 실현으로 설업대폭 감축과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기만 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같은 동포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핏기조차 없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둘씩 허져가고 있는 사실 앞에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남북은 여전히 반목과 적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0여년간 계속해 온 군비경쟁을 조금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남북한 끊임없는 군비경쟁은 남북의 사회를 왜곡시키고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 다른 부분의 희생은 초래해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또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적 대치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의 지출은 경제에 주유살을 지게하고 오늘날의 경제난을 초래해한 중요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남북한 당국은 상호군축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미뤄할 겨를도 풍요할 시간도 없습니다.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난을 극복하여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길은 남북간의 상호군축입니다. 군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축을 통한 군사비 삭감은 분단 비용을 통일비용과 평화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축은 남북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회생의 재원을 마련하고 통렬요한 걱정 남비를 막는 길입니다. 상호군축을 통해 군사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시달려 온 남북의 입장에서 군축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군축은 평화통일의 첫걸음입니다.

2.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 남북한은 시범적인 군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화군축은 경제난 극복 뿐만아니라,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축제안과 이의 실행은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군축 제안은 사문화되어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복원시키고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군축을 이루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해소를 위한 조항으로 불가침과 군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시범적인 군축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시범적인 군축조치를 위해서 남북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 기본 합의서 12조에서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무기로 관망된 대인지뢰의 제거를 위한 남북회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 남북한의 신뢰구축, 등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3. 남북한과 미국은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 본 회담이 열렸지만 의제조차도 합의하지 못하고 공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4자회담의 틀 속에서 남북대화과 북미대화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자회담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당사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도 4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지나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4.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병위비를 절약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방위비 지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군의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오히려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독재 정권 시절에 교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비대한 병력을 소수의 강군으로 구조조정하고, 무기의 도입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군대의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고, 미국에 대한 방위비 지원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며, 병위에한 확장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 국방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군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인 복지를 증진시키면서도,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도 북한의 거대한 군사력을 줄여나갈 것을 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반목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서로 미움을 식히고 중요성을 명치머려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남북 민족이 서로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총부리를 내려고,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1998년 5월 21일

[역설]

장해숙, 고송사, 김정희, 김난경, 김숙임, 김송희, 김태자, 김윤옥, 김희은, 나선경, 도령진, 민경아, 박순경, 박인혜, 박재희, 박관숙, 박철수, 선순화, 성명옥, 성봉희, 손덕수, 손은하, 신혜수, 신혜숙, 우정희, 유옥순, 윤갑순, 윤병진, 윤수경, 윤순녀, 윤영배, 윤정옥, 이장실, 이정숙, 이재경, 이문우, 이문자, 이미경, 이수태, 이영순, 이우철, 이경순, 이경옥, 이현순, 이현숙, 이호순, 이호재, 김정일, 진유희, 정갑자, 정보영, 정숙자, 정현백, 정화진, 조미리, 조화순, 지은희, 최만자, 최영희, 한명희, 한은경, 한진이

[보전희료]

김은희, 김중구, 송일수, 송학선, 양길승, 이한구, 임광철, 임광환, 전봉관, 정일룡, 최인순, 황상일

[물교]

법안, 법타, 석담, 석조, 지선, 지성, 지원, 진관, 정희, 호원

[천주교]

김승준, 나승구, 문규현, 박기호, 박승원, 안종식, 이영우, 강현준, 전광훈, 조성재

[가족교]

강문규, 김명희, 김상근, 김성수, 노경진, 박형규, 안재홍, 이만열, 홍근수, 홍성현

[원불교]

김현, 성명옥, 정성길, 조정근

[문화예술]

구중서, 김용태, 김윤수, 문호근, 신경림, 임무웅, 원동서, 이강호, 임옥상, 임진태, 정기영, 정태훈

[학제]

강내희, 강경구, 강지원, 권광식, 권인호, 김봉춘, 김성진, 김순애, 김은경, 김인길, 김인세, 김진관, 김태훈, 박거용, 박경태, 박상원, 박수영, 박종진, 박진도, 박도영, 안병옥, 유일상, 유준하, 유덕홍, 여실덕, 이이화, 이재봉, 이종수, 이철기, 이혜영, 임송기, 정대희, 정현오, 조희연, 우봉환, 최태근, 황준성

[시민단체]

강만길, 김성태, 김영락, 김용환, 김정숙, 김봉태, 김창국, 박상준, 박원순, 서경식, 서영훈, 손봉호, 송영호, 신원근, 유광일, 이경현, 이남주, 이상목, 이장희, 이정자, 임병진, 임동일, 차범석, 최일도, 한종희, 함원호, 홍옥화

[사회단체]

권영길, 권오현, 김귀식, 김금수, 김배영, 노수희, 문근주, 문태분, 박용길, 태다지, 양재덕, 유종순, 유창자, 윤문자, 이수관, 이수균, 이습원, 이지현, 이재정, 이창복, 이혜현, 조성열, 조성우, 조윤송, 원병세, 최고진, 최규영, 한송목

[청년]

강기정, 고경호, 송갑석, 오영석, 우상호, 유기훈, 유문준, 이연영, 임광석, 함문경

